펴낸곳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wahahabus@hanmail.net>
펴낸날 2017년 7월
편집디자인 이예반 <yeban@naver.com>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2017 거리활동가 정기교육

인권밥상 엑시트 자료집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2017 거리활동가 정기교육

인권밥상 엑시트

2017
거리활동가
정기교육

인권밥상
엑시트

1st>>>
2017.7.22.SAT

2nd>>>
2017.7.23.SUN

3rd>>>
2017.7.28.FRI-7.29.SAT

인권밥상
엑시트 EXIT

2017
거리활동가
정기교육

인권밥상
엑시트

“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의 고민으로 만든 ‘인권밥상’

EXIT는 청소년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거리 활동가분들을 위해, 소박하지만 건강한 활동을 꾸려나갈 힘을 나눌 인권밥상을 차렸습니다. 2017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와 함께 밤거리를 누비실 ‘거리활동가’분들을 모시고 인권밥상을 나눕니다. EXIT도 간보고, 다양한 활동가치들도 맛보러 오세요.

MENU > 메뉴

01	**EXIT 맛보기**	**p.04**
	EXIT TIME	p.05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운영원칙	p.10
02	**학생인권 감수성 맛보기**	**p.14**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	p.15
03	**청소년인권 감수성 맛보기**	**p.23**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p.24
	나이주의 사전	p.26
	2008 청소년인권선언	p.29
04	**성 인지 감수성 맛보기**	**p.33**
	성 인지 보드게임 WE CAN CHANGE 교육 매뉴얼(청소년파트)	
05	**노동인권 감수성 맛보기**	**p.77**
	부려 먹기 쉬운 존재들의 밑바닥 노동	p.78
06	**사이드메뉴**	**p.82**
	2017 거리활동가 모집공고 및 정기교육 안내문	

TIME TABLE > 교육 시간표

주제	날짜	시간	내용 / 진행
정기교육1 인권밥상 맛보기 (17H)	7.22 토	10:00-10:30	**[프로그램 1] EXIT 맛보기** 꾸마(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11:30-12:30	점심식사
		12:30-15:00	**[프로그램 2] 학생인권 감수성 맛보기** 난다(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15:00-15:20	쉬는시간
		15:20-17:50	**[프로그램 3] 청소년인권 감수성 맛보기** 트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7:50-18:00	장소정리
		18:00-	저녁식사
	7.23 일	10:00~12:30	**[프로그램 4] 성 인지 감수성 맛보기**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프로그램 5] 노동인권 감수성 맛보기** 따이루(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15:30-15:50	쉬는시간
		15:50-17:00	**[프로그램 6] 거리활동 맛보기 : 당사자 강연** 소리(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17:00-17:20	쉬는시간
		17:20-18:50	**[프로그램 7] 시식평 : 교육후기 나누기**
		18:50-19:00	장소정리
		19:00-	저녁식사
정기교육2 가출 맛보기 (26H)	7.28 금	19:30-20:00	**가출맛보기 안내** (모이는 장소 : 신림역 봉림교)
		20:00-20:00 (익일)	**가출 맛보기**
	7.29 토	20:00-21:30	**스누피와 함께 가출 되돌아보기**
		21:30-	만찬 (저녁식사)

Chapter
01.

EXIT 맛보기

EXIT TIME

2017. 07. 20.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밤거리에서 청소년 분들을 만납니다. 매주 목, 금 밤마다 뭘 하며 활동하는지 활동시간을 따라가면서 EXIT를 소개해봅니다! EXIT 단체, 아웃리치활동을 글만으로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 인거 같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하실 때 대략 '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활동고민에 참고정도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PM 17:00

같이 저녁 먹으며 활동을 준비해요

오후5시 활동가들이 속속 모이는 시간!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활동할 에너지를 충전해봅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6시부터는 활동을 위해 버스, 천막을 본격 세팅하기 시작해요!

다양한 이용자가 있는 만큼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해요. 생리대 · 응급약 · 물티슈 · 보드게임 · 안내브로셔 등이 담긴 리빙박스들을 바깥으로 옮기고, 천막을 쳐요. 바깥에서는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해요. 오늘 천막에서는 간식으로 프렌치토스트와 자취하다 보면 먹기 힘든 과일을 나눠 먹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같이 먹을 밥까지 버스로 옮기고, 청소를 하다보면 시간이 금방 가죠.

PM 19:00

사전회의를 시작합니다

EXIT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일상적으로 EXIT 업무를 챙기는 '상임활동가'와, 버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사전회의는 상임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용자 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이번 주 활동에서 챙겨야할 것들을 체크하고, 오늘 활동에 필요한 역할분담을 합니다. 오늘 활동을 전체적으로 챙길 총괄부터, 천막에서 간식을 만들고 이용자들을 맞이할 담당, 1번부터 3번까지 테이블을 챙길 담당, 주방에서 음식을 챙길 담당 등 다양한 역할들이 모여 EXIT 버스가 굴러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EXIT와 연합활동을 위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왔어요. 다음 주에는 버스활동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이용자분들에게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EXIT는 다양한 청소년 분들을 만나는 만큼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EXIT의 자원, 역량만으로는 마땅한 대책, 지원방법이 없을 때도 많죠. 그래서 EXIT는 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를 중요한 활동으로 고민합니다. 청소년, EXIT, 지역/시민사회의 힘이 모이면 해결 못할 일이 없죠!

PM 20:00

본격활동! 격한환영! 격한메뉴판!

"어서오세요" 이용자가 버스에 오르자 활동가들의 격한 환영이 이어지고, "메뉴판 적어주세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립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메뉴판에 중독된 사람들 같다고, 누군가는 방명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메뉴판'에는 EXIT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활동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또는 별명)을 쓰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 밤거리로 나온 EXIT!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죠. 따뜻한 밥 한 끼부터,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폰충전,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응급약, 청소년들도 필요하지만 사기 힘든 콘돔과 임신테스트기, '어린애들' 편견 속에 편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이들을 위한 휴식/상담, 숨 쉬는데도 돈이 필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 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책/보드게임까지..!

이렇게 체크한 메뉴판들은 평가회의 때 오늘 활동에

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정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름을 보면서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를 파악해서 잘 사는지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무엇을 했는지 실적을 체크해서 EXIT에 앞으로 더 필요한 일들을 찾기도 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죠.

PM 20:45

처음오는 이용자의 등장!

오늘 처음 온 청소년분이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긴장반, 호기심 반으로 버스를 기웃기웃 거리네요! "식사 하셨어요? 식사 안하셨으면 밥이나 빵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호객행위(?)로 버스 초대에 성공합니다.

어색어색해 하는 이용자분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EXIT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에요. 누군가는 밥차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콘돔차라고도 부르죠! 집 나와 본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나오시게 되면 EXIT 와서 세면도구세트라도 받아가세요. 씻기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는 청소년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곳이니깐요!" EXIT에 관심 있어 하는 느낌적 느낌을 느끼며 회원가입까지 권해봅니다. 우리 모두의 정보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EXIT 에서 연락할 때만 사용되고, 쓰고 싶은 것 까지만 적어주면 된다는 안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EXIT의 규칙, '셀프와 평화'도 소개합니다. "EXIT는 스스로 먹고 싶은 만큼 셀프로 먹고, 뒷정리도 셀프로 해주시면 되는 셀프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가 중에는 장애인 · 성소수자 · 여성 · 조부모가정 · 탈학교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다고 반말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때리고 욕하면 불편하고 무서워서 오기 싫어질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EXIT공간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평화유지단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PM 21:22

"핸드폰번호 알려줘요" 당황스러운 요구의 등장!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있는데 이용자중 한분이 "핸드폰 번호 알려줘요!" 라고 요구하네요. 나름 호감의 표시일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는 활동가! 하지만 침착하게 "EXIT는 필요할 때 기관폰으로 연락해주면 되요.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연락줄때 개인연락처로 전화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서, 활동가 개인연락처는 알려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라고 활동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는 분명히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설명합니다.

EXIT에서는 이용자 분들에게 활동가들의 개인연락처, 개인 SNS 등을 알려 드리지 않고, 기관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활동가 개인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게 되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못 받거나,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활동가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PM 22:00

오늘은 인권교육이 진행되네요~

천막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활동가와 이용자들이 같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네요! '활동의 지향과 가치를 지키며, EXIT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활동의 의미와 지향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EXIT는 청소년 분들이 차별적인 사회, 부당한 일들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부당한 일에 맞서며 청소년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나이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청소년인권교육도 진행하고, 소수자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버스에 성소수자프라이드깃발을 걸고 성소수자인권 전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육말고도 EXIT는 버스 안팎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416 기억과 행동 청소년실천단'을 꾸려 사회적 이슈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동절집회, 청소년참정권집회, 세월호진상규명 등의 활동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주체성'이라는 가치를 우리 안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배제되기 쉬운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기관이나 청소년 관련 학과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강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죠.

PM 23:05

별별프로젝트 발표!

인권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별별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되네요. '별별프로젝트'는 자신 그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해서 추진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을 짜서 발표를 하고 다른 이용자와 활동가들이 동의하면, EXIT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해서 추진해보는거죠. 이용자들이 먹고 싶은 브라우니 · 달고나 같은 간식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춤 · 인권 등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더러워진 버스를 청소하거나, EXIT를 주제로 필리버스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별별 것들을 다 하죠!

이외에도 '여행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가보고 싶었던 곳을 활동가와 1:1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축제, 영화감상, 연말파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문화프로젝트' 등도 진행됩니다. EXIT에서는 청소년 분들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PM 23:59

패트롤을 마친 팀이 컴백했어요!

EXIT가 밤거리에 나온 이유는 청소년 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밤거리도 너무 넓어서 EXIT를 모르는 분들, 가고 싶은데 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청소년 분들을 만나기 위해 청소년 분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 '패트롤'이라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EXIT 버스로 초대하기도 하고, 생리대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길바닥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 등의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둘러보기도 하죠.

그런데 밤거리가 위험한건 청소년 분들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활동도 중요하지만, 활동가의 안전도 중요중요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패트롤을 나갈 때는 최소 2인1팀으로 조를 짜서 함께 움직입니다. 패트롤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뛰쳐나가야 할 때는 꼭 2인 이상이 함께 이동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AM 00:10

수다와 고민의 바다

막차 시간이 지나고 버스가 조금 조용해지니 본격적으로 수다와 고민이 바다가 펼쳐집니다.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수다 떨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학교와 직장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애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도 하고, 독립에 대한 계획,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썰을 풀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수다와 고민을 잘 떨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뢰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거다', '나의 경험과 고민을 학교교사들처럼 본인의 잣대로 함부로 폄하하고 무시하지 않을거야' 같은 신뢰가 있을 때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EXIT에서는 '비밀보장의 원칙', '청소년 입장에서의 생각'을 중요한 활동원칙으로써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원칙에 의심이 생길수도 있다는 고민 속에서 활동가의 참여나이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AM 00:40

이런 ^%#@X&!@!!XX

버스에 울려 퍼지는 소수자 비하 욕설! EXIT가 서로의 다양성, 인권, 인격을 존중하는 평화의 공간을 지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차별, 혐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장난이라며, 때로는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폭력, 차별, 혐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순간 당황하는 활동가! 하지만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용자나 활동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넘어가게 되겠죠? 침착하게, 하지만 시끄럽게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폭력, 차별, 혐오에 침묵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맞섭니다. "그런 표현 되게 사람한테 상처주는 표현이야" "그런 행동 불쾌해. 성

희롱이고 여성혐오라고 생각해. 이 공간에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불편해지는 것 같아." 진지하게 왜 문제인지 말하기도 하고, 다 같이 EXIT가 소수자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평화의 공간 이라는 걸 쫓아가 외치기도 하죠!

AM 01:00

자취방으로 빠이빠이

"안녕 나 이제 갈래. 내일도 출근해야 해서 얼른 가서 자야겠다" 얼마 전 자취방을 구해서 독립한 이용자가 집에 가기 전에 인사를 하네요. 집에서 반찬 만들어 먹을 시간도, 재료도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반찬과 3분요리를 포장해서, 독립해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지지하고 응원하죠. '모두가' '당연히'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깐요~

"아 근데 나 다음주에 학교가야 하는데 가방이없어. 엑시트에 혹시 가방은 없어?" 라고 물어보네요. 마침 활동가 집에 요즘 잘 안 쓰는 가방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안 쓰는 거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좋을거 같은데 이걸 줘도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들어요. 다른 활동가에게 물어보니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양새보다는 EXIT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좋을거 같다고 하네요!

EXIT는 활동가 개인이 사비나 개인물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다른 활동가들에게 사비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같은 부담스러운 문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고민, 또한 활동가와 이용자간의 금전적인 관계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개별적인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다양한 상황을 살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필요했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의 경우 선의로 한 행동이 이용자들에게 차별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EXIT 기관차원에서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해서, 활동가나 이용자의 부담 등 다양한 상황을 살펴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AM 01:31

SOS 요청이 왔어요!

천막 정리를 시작하는데, 기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이랑 롯데리아 앞에서 놀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벌어졌데요. 일이 커져서 지구대까지 왔는데 경찰들이 폭행을 당한 청소년 분들에게 오히려 "왜 어린 학생들이 일찍일찍 안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거리에 있냐"며 반말로 혼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차별적 상황, 부당한 상황에 내몰리곤 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일인데 억울하게 혼나기도 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보다 과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조차 안내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XIT는 청소년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잘못한 일에 합당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써 활용 될 수 있길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문제점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연계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법을 방패삼아 보호받기 위해 임금체불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를 신고하거나, 아동학대와 학생인권침해문제를 함께 신고하고 대응하기도 하는 등의 지원활동도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정의!

AM 02:30

고민나누기! 평가 및 사례회의를 시작해요

다이나믹한 활동이 마무리 되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만 많은 이용자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고민들이 들었을거에요. 그래서 활동의 마무리는 고민을 나누는 평가 및 사례회의가 진행됩니다.

아웃리치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하다 보면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생각으로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혼자 끙끙 앓다보면 화병이 나거나, 본인의 생각에 갇혀버리기 쉽죠. 그래서 EXIT에서는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기 보다는, 다함께 고민을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길 권장합니다. 당장 들어난 문제만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만드는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방법을 찾아내게 되죠!

누군가의 비빌언덕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지원하고 돌본다는 건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활동가 스스로 소진되지 않도록 활동가들 간의 소통, 협력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활동 전후로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가모임/활동가 워크숍/심화교육/정기교육 등을 통해 활동가들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EXIT 단체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M 04:59

아직 지하철은 다니지 않는 애매한 시간에 끝나버린 활동

회의도 끝나고, 짐도 다 정리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끝나버렸어요. 집에 가는 첫차까지는 아직 40분 이상 남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활동하다보면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활동가의 귀가를 책임지는 활동비 지원이 있으니깐요!

EXIT에서는 15000원~30000원 사이로 활동가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현실적인 재정문제 속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EXIT에서는 활동가들이 덜 지치고 열심히 활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고 추진합니다. 활동 끝나고 맛있는 야식으로 체력을 보충하는 것도 그 일환이랍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운영원칙

2017년 6월 12일 기준

1.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활동 기준(목적, 가치와 전략, 입장 등)

1)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목적

- 거리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건강하게 자립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발휘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든다.

2)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가치와 전략

- 가치 : 주체성, 연대와협력, 성장, 평화
- 전략 : 주도성, 즐거움, 배려, 진정성

3)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입장과 관점

- 이 거리의 주체인 청소년은 거리 문제 해결의 주역이다.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회의 문제이다. 우리는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무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각종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4) 활동목표(2016년~2018년)

〈2018년도〉
*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대안 제시
(청소년당사자 조직, 이슈개발, 토론회)

〈2017년도〉
*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청소년과의 신뢰로운 관계형성
* 청소년들 개개인의 어려움에 맞는 서비스를 시도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
(청소년당사자 조직, 이슈개발, 토론회)

〈2016년〉
* 다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며 활동 자료를 나눔
*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여 아웃리치를 정례화
*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웃리치 시도
(2011~2015년도 안산지역 아웃리치 활동 보고서 발간, 지역조사-거리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개발)

사업의 구조화, 체계화 단계	사업의 안정화, 내실화 단계	사업의 확장 단계

※ 참고 : 활동목표 주체별로 정리

2.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활동 내용

1) 돌봄

- 거리에서 청소년 발굴(패트롤)
- 따뜻한 밥상 나누기(식사, 간식)
- 수다와 상담이 함께 하는 공간(친구, 멘토, 부모 상담)
- 잠시 쉬어가기(마루에서 휴식, 보드게임, 폰 충전)
- 다친 친구를 위한 의료지원
- 성범죄피해청소년지원활동(사건 고소 진행, 심리치료 등)
- 위급한 상황의 법률지원(일 관련, 경찰서, 변호사 등)
- 긴급 상황에서의 물품지원(속옷, 양말, 위생용품, 콘돔)
-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2) 배움과 성장

- 강연10대 ° / EXIT파티
- 아무도 무시 못할 찍소리 워크샵
- 주제가 있는 스토리텔링
- 취업준비교육, 경제교육(노동권, 이력서, 자소서, 면접)
- 성교육(성폭력, 성매매, 성적 의사결정, 피임, 임신과 출산)
- 진로상담(인턴십, 진로교육, 직업체험, 진로정보)
- 필요한 정보 나누기(아르바이트, 검정고시 등)

3) 청소년의 참여

- 청소년운영위원회 : 버스 활동 기획 및 운영, 대사회적으로 청소년 목소리 내기, 청소년평가단
- 사회참여활동 : 세월호, 알바데이, 퀴어문화축제 등
- 별별 프로젝트
- 416 기억과 행동 청소년 실천단
- 해변 아웃리치 십대기획단

4) 연대와 협력

- 지역 내 청소년 기관과 연계 및 네트워킹
- 활동가 조직, 활동가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 지역 내 청소년 이용 업소와 협력
- 거리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3. 조직 및 기구

1) 상임활동가(구성, 역할)
- 자격 : 추가적인 논의 필요.
- 상임활동가 4인으로 구성(2017년 하반기부터 0.5인 추가)
- 역할 : 업무분장표 참고

2) 자원활동가(구성, 역할, 교육 등)
- 자격 : 추가적인 논의 필요.
- 정활동가 : 연 1회의 정교육을 이수하거나 준활동가로 30회 이상 활동한 자. 활동비 3만원.
- 준활동가 : 격월로 있는 세미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하는 자. 활동비 1만5천원.
- 활동가 교육 과정
  · 활동가 정교육 : 연 1회 48시간 교육(24시간 가출체험 포함)
  · 활동가 세미교육 : 격월 진행하는 3시간 가량의 현장 오리엔테이션
  · 활동가 보수교육, 심화교육 : 내부적으로 운영하거나 외부 단체의 교육에 참여
- 5번의 활동을 참여 후 카톡방 초대.
- 세미교육 및 정규교육 후 12회 아웃리치 활동을 참여한 활동가에 한해 총괄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세미교육 후 30회 이상 활동 후 활동 평가 이후 정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연간 60% 이상의 교육을 참여하여 정활동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활동 휴식 후 복귀규정
  · 3개월 이상 활동을 한 경우에 교육 참여 없이 6개월 이내에 활동 복귀할 수 있다.
  · 세미교육 이후 3달 이내 활동한 활동가는 교육 참여 없이 2개월 이내에 복귀하여야 한다.

3) 활동가의 활동 원칙
(1) 청소년에 대하여
- 청소년의 비밀을 지킨다.
-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한다.
- 상대방의 연령, 성별, 지위, 계층을 막론하고 인격을 존중한다.
- 인간을 자신의 영리활동에 이용하지 않는다.
- 청소년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
- 청소년의 친구나 가족을 만났을 때, 활동가 자신을 소개한다.
- 활동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는 분명히 거절하고 생산적인 해결책으로 안내한다.
- 기관이나 활동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준다.

(2) 활동가 스스로 지키기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의 모든 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가 교육과 평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활동의 지향과 가치를 지키며,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활동의 의미와 지향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 활동가들 간의 협력과 책임을 완수한다.
- 활동가 스스로 소진되지 않도록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평가회의를 참여한다.
- 모든 활동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돌발 상황이나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 활동가들과 함께 상의 후 행동한다.
- 시간을 잘 지킨다.

MEMO

Chapter 02.

학생인권 감수성 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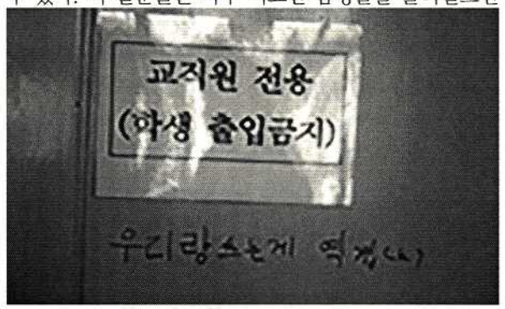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

『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쟁점탐구』 1부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들은 십중팔구 '학생에게는 인권이 없다(제한되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이때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말은 일장 연설을 시작하기 전 "아아아~" 목청을 가다듬는 소리나 다름없는 관용어에 불과하다. 군인의 인권, 죄수의 인권도 이야기되는 시대에 왜 유독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호통을 치는 이들이 많을까? 머리 좀 길러보겠다는 게, 밥이나 좀 편히 먹자는 게, 재미없는 걸 재미없다고 하는 게,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일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당연한 걸 왜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일까? 학생인권의 무엇이 호통치는 이들의 똥줄을 타게 만드는 것일까.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누군가에겐 유쾌한 도전일지 몰라도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예전 신분제 사회에서 강요됐던 '아랫것들'의 비루한 삶은 지금 '어린것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의 비루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어린것들이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비루함은 더해진다. 학생은 단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학생이 된다. 학생답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지워져 버린다. 학생들에게 금지된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의문을 갖는 자는 위험하다. 그 의문을 버젓이 드러내는 자는 더더욱 위험하다. 아랫것들은 아랫것의 삶은 자연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신분질서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어진 틀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만큼 바로 그 틀에서 이득을 보는 이들에게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주장, 학생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움이라는 주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거대한 지각변동을 가져올, 봉인을 푸는 주문이다. 그래서 봉인이 다 풀리기 전에 서둘러 주문을 잠재우려는 호각소리가 유난히 요란할 수밖에 없다. 호각소리가 워낙 요란하다 보니, 워낙 오랫동안 같은 호각소리를 듣다 보니 학생들 자신도 자기가 아랫것이 아니라 인간임을 주장하는 데 주저하곤 한다. 예전 아랫것들이 아랫것의 삶을 자연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강고해 보이던 신분질서도 아랫것들이 던진 질문과 도전에 부딪혀 결국 무너졌듯, 현재 학생이라는 신분질서에 감히(!)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 의해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너무도 강고해 보이는 질서가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질문들은 아주 미묘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킨



다.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심오하고, 불쾌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유쾌하고, 지끈지끈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머릿속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질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

교직원화장실 몰래 쓰는 재미로 학교 다니는 중학생

'학생 출입 엄금!' 표지판이 달려있는 교직원 화장실을 몰래 쓰는 재미로 학교 다니는 중학생이 하나 있다. 학생 화장실은 지저분해서 토 나오기 십상인데다 여유롭게 볼일을 볼 수 있단다. 이 친구, 볼일이 끝나면 화장실 문 안쪽에다 메모를 남기고 나오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감사하다, 죄송하다 따위의 말이 아니다. "우리 학교 교사 수는 80명인데 화장실 개수는 10개! 학생 수는 1천명 가까운데 화장실 개수는 대체 몇 개일까요?"라는 어려운 질문에서부터 "3학년 복도 끝 화장실 문고리 고장 난 지 어언 2개월! 안 고쳐지는 이유는 대체 뭐임?" 식의 메모

로 속 편하자고 변기에 앉은 교사들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메모다. 이 학생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은 중학교 3년을 다니면서 자연스레 찾아온 울분과 깨달음에서 비롯됐다.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처지가 보인다!' 똥오줌을 싸는 순간에도 인격이,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보인다는 얘기다.

정말 그렇다. 몇 해 전 흔히 '노가다'라 불리는 건설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위험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을 하면서도, 온몸에 골병이 들 정도로 무거운 건축자재를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인 그분들은 화장실에서 자기들의 기막힌 처지를 온몸으로 느꼈다. 문짝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간이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삭혔던 울분은 '똥이라도 존엄하게 싸보자!'라는 외침으로 이어졌고 결국 근로기준법이 손질됐다. 공사비 얼마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간이화장실과 간이식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2007년 대한민국의 일이다. 학생들의 처지는 과연 다른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화장실의 수준은 어떤가? 고장 난 채 내버려진 문짝은 없나? 쉬는 시간 북새통을 이루지는 않나? 볼일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평균 시간은 얼마인가? 겨울에 따뜻한 물은 나오나? 휴지나 비누는 갖추어져 있나? 화장실 가는 데도 허락이 필요한가? 점심시간 칫솔을 입에 물고 복도에서 기다려야 하지는 않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교사들도, 교장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것은 단지 학생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그런 처우가 당연시되기 때문인가? 학생이라는 '아랫것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공짜 밥'과 '두발자유' 사이의 거리

2010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이슈 가운데 하나는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무상급식이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해주던 방식이 아니라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생 전체에게 공짜로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여당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부자 학생까지 공짜로 먹이자는 거냐,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인기 영합성의 공약이다 등 여러 반론을 내놓으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무상급식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눈치 빠른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무상급식에 쓰이는 돈이 아까와도 대놓고 반대했다간 닦아 놓은 표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임을 직감했던 것일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들이 너도나도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다. 의무교육이 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라면 당연히 수업료도 급식비도 무상(공짜)이어야 한다는 데 누구도 대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순식간에 찾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애들 먹는 것 갖고 어른들이 다퉈서야 되겠나, '밥'에 무슨 이념이 있나, 자라는 애들 잘 좀 먹이자는데 돈이 아깝냐와 같은 말들이 공감을 얻은 덕분도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날로 치솟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이 급식비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이 컸던 덕분도 있을 것이다. 선택적인 급식 지원은 지원 받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누군가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어쨌거나 무상급식은 '어른'들이 '애들'에게 좋은 걸 주자는 것이었기에, 실현 시기의 차이는 있었으되 커다란 정서적 저항감 없이 '어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공짜(free) 밥'에 대한 주장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기성세대의 동의를 얻은 반면, 학생의 '자유'(freedom)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낯설고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상급식에는 적극 찬성하는 이들도 두발자유 주장에는 한발 뒤로 뺀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한 것일까?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자유부터 밥을 먹을지 말지 결정할 자유, 치마 길이를 결정할 자유, 귀가 시간을 결정할 자유, 학교 보충수업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할 자유, 부모나 교사에게 내 고민을 말할지 말지 결정할 자유, 비밀 이야기나 비밀의 공간을 가질 자유, 학교의 결정에 질문을 던질 자유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자유에 대한 모든 주장은 어설퍼 보이거나 위험해보이거나 뭔가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밥은 말이 없지만 학생들은 말이 많기 때문일까? 공짜 밥은 어른들이 허락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에 관한 문제인 반면, 자유는 그 울타리가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묻기

때문일까? 학생이라는 '아랫것들'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 가려지고 무엇이 들춰지나?

2009년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세 명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을 때, 동방신기 팬클럽은 "그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만들어 신문에 실었다. 이들은 소속사가 강요한 전속계약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동방신기에게 강요되는 굴욕적 조건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알려고 들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답을 기대하지 말라!

놀랍게도, 동방신기 팬클럽은 이탈리아의 대표적 작가로 손꼽히는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가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을 동방신기 멤버들이 당하고 있는 원숭이 취급의 본질과 연결시키고 있다. 유대계였던 프리모 레비는 2차대전 말 파시즘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여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나날을 보낸 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다.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프리모 레비가 던진 질문은 이러했다. 그토록 많은 이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수용소나 가스실로 보내졌는데도 히틀러 체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나? 사람들은 그 수많은 학살에 대해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알고자 했다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몰랐을까? 고민 끝에 그가 찾은 대답은 바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는 특별한 불문율이 널리 퍼져 있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획득하고 방어했다." 위험해지고 싶지 않았던 독일인들이 '획득'했던 이 불문율이 오늘날 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소속사에 의해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 동방신기 팬클럽의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팬클럽의 성숙한 모습은 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팬클럽을 '빠순이'라며 평가절하할까? 이런 평가절하는 팬클럽 구성원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별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10대, 20대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왜 누군가의 성숙함은 이토록 잘 가려지는 반면,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더 잘 부각되는 것일까? 동방신기 멤버들뿐 아니라 팬클럽 구성원들 또한 원숭이와 다름없는 신세,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이 없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에 고삐를 건 이들에 의해 쉽게 규정되고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 폭력이라는 말에도 같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학교 폭력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 Violence in School? Violence by School?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아니면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을 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은 오직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 곧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인 경우의 폭력만을 의미하는 말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왕따, '빵셔틀', 졸업식 알몸 뒷풀이, 집단구타, 집단 성폭행 등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폭력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유독 학생들이 가해자인 폭력만 혀를 찰 일이 되고 카메라 세례를 받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똑같은 일을 학교장의 명령이나 교사의 지시로 하면 '교육'이 된다. 교사에 의해 왕따가 되는 학생, 교사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학생, 국가 행사를 위해 행사장 청소에 동원되는 학생, 교문지도와 얼차려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교사의 체벌은 '폭력'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매', '어쩔 수 없는 교육수단'으로 옹호되고, 이를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다.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왜 어떤 사람의 행위는 세세히 들춰지고 지탄을 받는 반면, 왜 다른 사람의 행위는 당연한 일상사로 여겨지고 폭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가? 이런 조건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왜 용기가 필요하단 말인가. 체벌은 학생이 잘못을 해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학생이 때려도 되는 존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사랑이나 교육이란 가면 뒤에 숨는 것은 권력의 위선일 뿐이라는 생각은 왜 발칙한, 아니 몹쓸 생각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학생이라는 '아랫것들'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

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학교란 어떤 공간인지를 살펴보는 관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것들'이 '아랫것들'로 대접받는 이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를 살펴보는 관문이다. 두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답을 찾을 수 있

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각자가 찾은 대답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짚어보자.

마침내 그날이 왔다, 제기랄!

프랑스에는 새해가 오는 것에 반대하는 '새해반대전선'(포나콩, Fonacon)이란 이색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시간이 흐른다는 건 지구와 우리가 무덤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라며 그런데도 이 비극을 기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현 지구의 모습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까지 섞여 있는 심오한 물음이다. 아무리 거부해도 시간의 화살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달력을 버린다 해도 새해는 기어이 오고야 말 테지만, 이 황당무계한 '새해 반대 시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서는 '개학반대 시위'가 있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교육청 앞에서 개학반대 1인시위를 벌인 것이다. 학교에 가봤자 또다시 숨이 턱턱 차오를 정도로 내달려야 할 테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텐데, 이런 상태에서 왜 학교를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무리 거부해도 개학날은 기어이 오고 말았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결석 처리될 뿐이었지만, 이 부질없는 '개학 반대 시위'도 오늘날 학교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2010년 2월에는 또 다른 학생들이 졸업식장 앞에서 두부를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감옥 같은 학교를 졸업해서 비로소 출소, 아니 탈출했으니 두부를 먹는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 그토록 많은 학생이 있고 그토록 많은 학교가 있는데, 왜 어서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며 밤잠을 뒤척이게 만드는 학교는 없는 것일까? 학교와 가장 비슷한 공간을 물어보면 왜 늘 감옥이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일까?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일이 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처럼 여겨질까?'안습닷컴'이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한 누리꾼의 풍자처럼, 학교 개학은 왜 '중고생 최후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숨 막혀 하는 것은 단지 입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공부에 대한 부담, 등급이 매겨질 때의 비참함, 미래에 대한 불안 이외에도 학생들의 마음을 헤집는 칼날은 없을까? 시인이자 영화감독인 유하는 학교가 남긴 내면의 흉터를 시로 토해 냈다. 유하의 시에는 '아랫것들'이 감히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
- 유 하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아직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다. '덜된 사람', '사람이 되어 가는 존재'로 취급된다. 청소년은 미숙하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미리 정해주어야 한다.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다.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른들의 '허락'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은 충동적이다. 그래서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시'해야 한다. 국민의 20%를 차지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이런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아닌 청소년에게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특히나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 청소년에게 자유와 권리는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것이 된다.

그런데 모든 사회에서 청소년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당하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의회를 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법률안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법률안은 지역구 의원의 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어린이의회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 지금까지 4개에 이른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제출하는 소박한 건의들마저도 휴지통으로 직행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는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 참여 기구들 역시 장식물 취급을 당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열일곱이나 열여덟 살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학교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고 교육감을 뽑는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스페인에 있는 벤포스타 공동체에선 청소년이 시장직을 수행하고 수업료를 받으며 공부를 한다. 공부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돈 없으면 공부도 못 한다. 이런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같은 또래임에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문제의 뿌리가 나이가 아니라 청소년을 대하는 그 사회의 태도에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와 다른 태도를 선택한 나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돌이켜보면 인권의 역사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저항이 있었다. 오래전 여성들은 남편의 '재산'이었기에 인권이 부정됐다. 노예는 거룩하신 주인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가축'이었기에 인권이 부정됐다. 조선사람은 대일본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할 '야만인'들이었기에 인권이 부정됐다.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였기에 수용됐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저항과 도전 끝에 '사람 이하'에서 '사람'으로서 지위를 획득했다. 완전히 동등한 지위는 아닐지라도 사람 취급은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은 '사람 이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덜 된 존재'로 취급받는다. 한국보다 앞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사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덜 된 사람도 아니다."우리도 사람이다!"를 외쳤기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열렸다. 청소년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좋은 돌봄인지를 결정할 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기준으로까지 올라섰다. 그리고 지금 그 외침은 뒤늦게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다.

2008년 12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는 아주 당돌한(?) 주장을 내놓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전국 방방곡곡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직접 쓴 〈2008 청소년인권선언〉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미성년자'라는 말 자체가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차별적인 말이 아닌가?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곧장 반말을 하기나 막 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왜 때려요?" "왜 맞아야 해요?"라는 말이 예의나 학생의 본분이라는 말로 공격당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지, 누가 내 의견을 가장 지지해줄 만한 사람인지, 특히 교장이나 교육감 정도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의 목소리는 왜 좋게 말하는 재잘거리는 새소리 정도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장난 스피커 음향 정도로만 취급될 뿐, 학교를 술렁거리게 만드는 의미 있는 언어가 되지 못하나? 이와 같은 질문들이 봉쇄된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만약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 자체가 학생들에게 금지되어 왔기 때문은 아닌가?

'주연배우'와 '행인1' 만큼의 거리

2009년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을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보장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자 갖가지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된 지금까지도 그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권리의 남용을 우려하고 교육현장의 질서가 무너질까 염려하지만, 정작 진짜로 염려해야 할 것들은 본무대에 오르지조차 못한다. 학생인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스타급 주연배우의 지위를 차지하지만, 설령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이제 막 등교를 시작한 인권을 퇴학시켜서는 안 된

다는 목소리는 행인1 정도의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사교육비가 늘까 걱정한다. 그러나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학원과 피시(PC)방 외에는 갈 곳이 없는 황량한 청춘들을 걱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입시 경쟁이 강화되면 학생들이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조차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나마 많다. 그러나 정작 아무의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무얼 하며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비어 있는 시간'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이는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체벌이 사라지면 교사가 일부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스스로 또는 주위 사람의 힘을 모아 폭력을 제압할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다만 선량한 독재자가 나타나 주기만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시끄러워질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학교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다!'는 무기력과 체념이 앞으로 학생들의 삶에 미칠 영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 ·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생들이 정치에 휩쓸릴까 걱정한다. 그러나 '중립'을 가장하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데 너무도 익숙해진 학생들, 그래서 학교가 공식 허락한 생각만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이는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는 학생들을 걱정한다. 그러나 반성하는 척하거나 친구를 고발하고 벌점을 면제받는 시스템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질문을 이끌고 다닌다. 사실, 무대에 반짝 출연도 하지 못한 걱정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은 지금과는 다른 학교의 풍경을 만들어 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학생 인권 부적'과 '시험 대박 부적' 중 어느 것을 가질 테냐?

학생인권에 대해 가장 주저하는 이는 학생들 자신인지 모른다.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 교실이 개판 된다, 노는 애들이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다는 우려가 학생들 입에서 흘러나온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권을 찾다 보면 공부에서 멀어질 것 같다. 〈정글고〉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교장 선생님의 말마따나, '학생인권 부적'과 '시험 대박 부적' 중 하나만 고르라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 대박 부적을 고를 것이다. 그러나 정말 양자택일의 문제일까? 두발규제도 없고 체벌은 상상도 못하고 오후 2, 3시면 수업이 끝나는 핀란드의 학생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력조사(PISA)에서 1위를 차지한 비밀은 무엇일까?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종합 2위를 차지했지만, 학생의 흥미도는 17위, 학생의 자아 개념은 19위에 불과했다. 성적은 높지만 흥미는 낮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남의 나라 얘기는 꿈같은 얘기이고 한국의 학교가 바뀌지 않는 한 버텨야 한다는 심정으로 학교생활을 견뎌내는 학생들도 많다. 졸업한 후에나 인권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현재를 유예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확 달라진 세상이 열릴까? 초 · 중 · 고를 거치는 동안 몸에 배인 습관과 사고방식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자기 인권을 맡겨둔 전당포의 위치는 아무리 비싼 내비게이션을 장착한다 해도 찾기 힘들다. "우리는 맞아야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른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온 아내는 남편이 때리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다. 주인의 채찍질에 시달려 온 노예도 채찍질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다. 폭력 그 자체, 때리는 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부여한 질서는 탓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이렇게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는 별일 없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괜찮다며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을까? 올해 만난 담임이 괜찮은 사람이고, 올해 배정된 학교가 좋다는 우연에만 기댄 채 살아가야 할까? 가정폭력방지법은 모든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부부에게도 이 법은 영향을 미친다.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인간에 대한 도리가 있고 아무리 상대에게 화가 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선택해서 이룬 가족 안에서도 행여나 있을 수 있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하지도 못하는데 주어진 학교 안에서 '행운'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매일 위험천만한 도로를 간신히 건너 '휴, 오늘도 살아남아 다행이다'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면 폭주하는 차를 통제하거나 도로 설계를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순발력이 뛰어나고 뜀박질을 잘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나 노인이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는 모습을 놔둬도 괜찮은 걸까? 나의 현재 상태, 나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학생인권'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

'무서워요'에서 '우리가 무섭지 않은가'로!

인권은 사실 시끄럽다. 누군가는 나는 괜찮지 않다고, 왜 그래야 하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이 불편한 누군가는 불쾌함을 드러내고 윽박지르는 풍경이 곧잘 연출된다.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만 마이크를 쥐고 있을 때 운동장은 숨죽인 듯 고요하다. 누군가에게만 권리가 독점되어 있다면 소란은 없다. 인권이 보장되는 순간, 사람들은 입을 열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란스러워진다. 그렇다고 인권이 괜한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묻혀 있던 갈등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소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이 소란을 거쳐야 갈등의 뿌리를 없앨 수 있다.

소란을 일으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변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얘기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했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살고 싶어 나왔다!"고 외쳤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죽는 게 무서워요!"라고 말하던 학생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무섭지 않은가?" 인터넷에서 대통령 탄핵 소환을 처음 제안해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이끌어낸 이도 열일곱살 학생이었다. 결국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고 수입 쇠고기 검역이 강화됐다.

2010년 10월, '노랑진녀'라 불리는 한 예비교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 있다. 그녀는 "♥이주호 장관님 데이트 신청♥"이라고 쓰인 분홍색 피켓을 들고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끝에 결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면담하게 됐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서야 과목별 교사 채용 규모를 발표하는 행태 때문에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연초에는 채용 규모를 발표하도록 해달라는 게 그녀의 요청이었다. 장관은 그녀에게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던 이들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열광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장관 앞에 던져진 제안이 껄껄 웃으며 받아들여 줄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뭇 아름다워 보이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사람은 바로 교과부 장관이었다. 장관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았다. 선발 교사 수를 앞당겨 발표하면 그뿐, 교사 정원을 늘이라는 것도 아니니 재정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었다.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는 장관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도 챙겼다.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과목별 채용 규모에 맞춰 메뚜기 뛰듯 시험 준비를 전전해야 하는 예비교사들의 신세는 그대다.

정부청사 앞에 모여 교사 채용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수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 요구'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그렇다면 '학생도 사람이다!', '학생이라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장은 애교 섞인 부탁과 매달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어른들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며 간청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꿔 주지 않을 테야? 그럼 우리가 바꿀 테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약간의 변화라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기도 똑같은 사람임을, 인권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곧장 동등한 듯이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너무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정의는 결코 오지 않을 정의임을 아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면, 기다림을 멈추고 버스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걸 아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나중에 그곳에서'(Later and there)라는 주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Now and here)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학생들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학생인권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학생인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

생인권 수준을 높이자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하는 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도 퍼져 나가고 있다. 학생인권을 밀봉했던 상자의 봉인은 이미 풀어졌다. 그 상자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이 책에서는 그 상자 안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기로 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자세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인권, 교문을 넘다' 책을 추천 드립니다.

Chapter 03.

청소년인권 감수성 맛보기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예의' 속에 담겨 있는 나이주의

호칭, 상하관계, 그리고 나이

글.둠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이외의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살게 된다. 그 호칭은 대개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언니, 오빠(누나, 형), 동생, 선배, 선생님, 이모, 누구 누구 씨, 선생님, 누구 친구 등등 살면서 쓰게 되는, 듣게 되는 다양한 호칭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서로의 나이 서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언니, 오빠 등은 물론이고, 실제 친인척 관계가 없는 이들마저도 이모뻘, 삼촌뻘, 이모, 삼촌 등 나이-친족 관계에 따라 부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소년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언론에서 호명될 때마저도 비청소년들과 구분되어 ○○양, ○○군 등으로 하대를 받으며, 심지어는 영유아의 경우 '○○이'라 보도되기도 한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 아랫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에 더해 사회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집단을 나누어 공식적으로 낮은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호칭과 그에 따른 위치는, 그에 따른 대우로 이어진다. 아주 대표적으로,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고, 이름만으로 호칭하거나 하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어린 사람들은 서열로 보면 아래의 호칭, 더 적은 존중, 더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다가와 '○○ 친구'라며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불쾌한 경험도 자주 하게 된다. 어린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친하다고 '믿으면' 상호 합의 없이 친근함을 '베푸시는' 것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의 세뇌와도 가까운 주문이 함께한다. 어떠한 갈등상황에서도 연장자에게는 예의를 지켜 말해야 하고, 얼마나 옳은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연장자의 심기를 거슬렀다면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도덕적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연장자,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장자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한 터부로 돼있다. 마치 군대에서의 하극상과도 비견될 만큼, 나이권력을 거스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실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깍듯이 인사를 해야 한다거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예의'의 목록들은 군대에서 계급이라는 기준 아래 존재하는 격식을 그대로 차용한 듯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과 비청소년 간의 언쟁에서, 청소년에게 "내가 네 엄마(아빠)뻘인데 어딜 감히!"라는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 기념 스티커 <요즘것들의 말대꾸>

어떤 예의는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다

청소년운동 내에서 활동가들이 주로 토로했던 경험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특정한 호칭으로 불리거나, 하대 등을 당했던 경험들이었다. 단순한 말 한 마디임에도 이것이 멸시나 무시 혹은 청소년 혐오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떤 호칭을 듣는지, 어느 정도로 예의를 차리는지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무례한 언행을 경험하는 이유가 단순이 나이가 어려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난데없이, 경황없는 와중에 지나가는 말들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주의에 대한 깊은 논쟁보다는 "초면에 합의 없이 반말을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대처하곤 했다. 때문에 많은 경우는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게 되거나 존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된다기보다는 반말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요건을 지키듯이 반응하는 것 또한 흔히 볼 수 있었다. 혹은 이러한 문제제기의 장에서 역시 나이권력이 등장하기도 한다. 좀 '정중하게' 반응하는 경우 역시 "예의를 지켜서 문제제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나이에 따른 호칭, 예의, 하대 등을 둘러싼 문제제기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발언이다. 나이어린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언권을 제약 당한다. 한국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란 '연장자가 듣기 싫은 내용의 말은 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 반대로 연장자는 연소자에게 하대를 하고 무시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조차 쉽게 용인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연장자에게 예의를 지키고 높은 호칭을 부여하는 것을, 혹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경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옹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시간 환산해서 '경험과 시간'의 양을 존중받는 것은 온당한 일일까? 경험은 사실 양적, 질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고, '높은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재단하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은 나이를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또한 정당화하는 것이다. 나이, 인종, 성별 등 사람 자체가 아닌 속성의 한 부분에 대해 존중을 표하게 되면, 그만큼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또한 쉬워진다.

가끔 그 연장자에 대한 예의는 "말이 안 통하지만 늙은 분이니 원하는 대로 해 드리자"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종류의 단절인데, 이 또한 나이에 따른 무시, 멸시에 가깝다. 또한 사회에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기 힘든 서사와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혹은 어떤 점에서 미숙한 사람들에게 "곱게 늙어야지"라거나, "노망이 났다", 심지어는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멸시적 시선을 던지기도 한다. 나이가 어리면 미숙하고, 하대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처럼 미성숙하므로 나이 값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존중할 필요 없다'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발현되는 것이다.

나이, 그 획일적이지만 추상적인 개념

사람이 정한 나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은 사실상 살아온 날이 얼마나 긴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나이 대에 적합한, 혹은 사회적으로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어떤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지에 가깝다. 청소년은 사회에서 정한 청소년이라는 자리에 얌전히 있는지, 20대는, 30대는, 40대는 그 나이대에 이뤄야 한다고 규정된 과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촘촘히 나눠진 모범 답안이 '나이'라는 개념으로 환원된다. 때문에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오래 산 사람일수록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나이권력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깍듯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그 시간들을 통해 가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전시하는 화법을 취한다. 결국 그 존중과 예의는 자신이 받게 된다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에 바쳐지는 것인데도 말이다.

존중한다는 것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어떠한 이유로 서로 간에 존중하거나 예의를 지키기 힘들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을 존중할지를 두고 그 사람의 성별, 국적, 인종, 성 정체성, 외모, 재산 등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인데, 나이 또한 앞의 예들과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곧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뜻이며,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예의'는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다른 정도의 존중을 표하는(혹은 표하지 않는) 어떤 관습에 가깝다.

나이에 따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존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칭과 예의의 방식을 나이 서열에서 분리해 내야 한다. 그리고 상호 존중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형태로 예의를 표할 것인가, 누군가를 어떠한 명칭으로 호명할 것인가를 재정의해야 한다.

출처: 주간인권신문 - 인권오름 / 제 493 호

나이주의: "나이에 따른 차별, 그리고 나이에 따라 사람을 규정하며 사회적 규범을 요구하는 제도나 이데올로기, 넓게는 사회 구조를 가리키는 말(나이주의,왜?-공현)"입니다. 나이주의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만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특히 더 심각합니다. 이 사전은 청소년 집단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하는 나이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이주의 사전

나이주의 [나이주이, 나이주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 사전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나이주의를 다루었다. 또한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나이주의적인 다양한 사례들과 그 양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나이주의에 대한 정의들이 17가지나 되지만, 이들을 각각 떼어내서 읽으려 하면 안 된다. 우선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만으로는 이면의 구조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정의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며, 더욱이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17가지 정의들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읽어내야 한다.

* 사전 내의 용어

청소년: 0세~??세의 사람.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구분하는 연령은 법체계별로 만14세에서 24세 사이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모호하다.

비청소년: 나이가 ??세를 넘어선 사람. 장애인/비장애인처럼 청소년 중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

꼰대: 나이주의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

1. 비청소년 간의 관계 맺는 순서, 예의를 청소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ⅰ.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거나 비청소년에게 하면 무례한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청소년을 하대하는 것
- 반가워요. 말 편히 해도 되죠?
- 공부 잘 해요?

ⅱ.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호칭들(00씨, 00님)을 청소년이나 연소자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특별한 호칭들(00친구, 00이, 00군/양 등)을 사용하는 것.
- 우리 00친구는 아수나로에서 왔어요.

2. 청소년이 법률적 무능력자라는 점을 이유로 손쉽게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이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는 것.
-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이를 교육 목적의 체벌이라고 정당화 하는 것.
- 휴대폰 압수도 성인에게 하면 금품 갈취이다.
- 소지품 검사, 반성문 쓰기

3. 청소년이 어떤 단체의 대표이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활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누군가에게 딸린 존재로 판단하는 것.

ⅰ.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 누구 따라 왔니"

ⅱ. "부모님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니?", "너 이러는 거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4. 청소년을 자신의 의지로 자라기보다는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해 키워지는 존재,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변하는 존재로 표현하거나 취급하는 것.
- 「우리 아이 1등 만들기」와 같은 서적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방송들.

5. 청소년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것.

ⅰ. 청소년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 토론회 등의 행사에서 청소년에게는 사례 발표 등의 역할이 주어지고, 발제나 토론 등을 비청소년인 '청소년 전문가' 패널이 하는 경우.

ⅱ. 청소년 발언에 실질적인 중요도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청하는 시늉을 함으로서 건강한 의사취합구조를 가장하는 것.

6. 청소년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능력이 없거나 무책임한 존재, 미성숙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ⅰ.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지!"
* 비청소년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ⅱ. 청소년에게 금전 관리나 대표 등 책임 있는 역할을 맡기지 않는 경우

ⅲ. 아이돌 가수 콘서트 때 소속사가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팬들에게 가하는 불합리한 규제(휴대폰 수거 등). 이것은 청소년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어 물을 어기고 사진을 찍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한 것.

ⅳ. 비청소년이 지각하고 사업 펑크내는 것은 그러려니 하면서, 청소년이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이를 청소년 범주 전체의 특징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것.

ⅴ. 청소년이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법률적으로 제한받는 것. 청소년이 사회적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

ⅵ. 청소년 대상의 사업들이 '청소년이 주체되는 행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비청소년이 만든 기획에 청소년은 동원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

7. 청소년 일반이 무능력하다고 전제하는 것. 그래서 능력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

ⅰ. 청소년 일반이 무능력할 것이라는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
- (상점에서 직원이) 그거 비싼 거야. 너 살 수 있어?

ⅱ. 애초에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그 이상의 능력을 보일 경우 쉽게 칭찬하는 경우
- 그 나이에 벌써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기특하네!

8. 청소년기를 생물학적으로 지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청소년과 비슷한 경험을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결정, 판단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
- 나도 너만 할 때 너랑 똑같은 생각 했어. 그런데……. (훈계)
- (자퇴를 결정한 청소년에게)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한다? 학교는 제대로 나와야지.

9. 청소년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감정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
-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냐.
- 너희 나이 때가 제일 좋은 거야.
- 네가 지금 하는 거 고생도 아냐.
- 학생일 때가 가장 편한 거야. 네가 사회 나와 보면 지금 보는 시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거야.
- 청소년이 하는 고민들을 모두 '중2병'으로 취급하고 경시하는 것.

10. 청소년을 독립적인 방어력이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해버리는 것.

ⅰ. 자기 집단의 약점이나 결점처럼 여기면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
- 우리 아이들을 지켜줍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 (집회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청소년들은 뒤로 물러나세요!!
* 이 경우 비청소년의 허세의식의 발현일 수 있음

ⅱ. 청소년 일반을 직접 참여하는 존재가 아닌 뒤에서 응원하는 존재로 연결시켜버리는 것.
- "아빠, 힘내세요!"라는 로고송이 나오는 CF.

11. 청소년을 미래의 인적자원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청소년의 활동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치부하는 것.
- "꿈나무" "자라나는 민주시민" "미래의 노동자"
- "체험 학습", "직업 체험"
- 오늘은 우리가 지키지만, 내일은 너희가 지키렴.

cf. 청소년 자치기구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 학생회를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하여, 학생회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학생회의 결정을 쉽게 뒤집는 것.

12. 청소년 일반을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것.

ⅰ.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
-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을 선동한다." : 이는 청소년에게는 정보를 선별하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이 내재된 표현이다.
- 청소년 비혼모를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지탄하거나,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말아먹었다며 동정하는 경우.
cf.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 그 운동의 순수성을 나타내려는 것. ex) 촛불소녀

ⅱ. 상큼 발랄한 이미지.
- 비청소년이 하는 집회나 토론회에 비해 청소년이 하는 집회나 토론회에 가볍고 발랄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
- 젊은 사람들이 분위기 좀 띄워 봐~

ⅲ. 발칙한 이미지. 저항적, 반항적인 모습. 단 귀엽게 용인되는 한 안에서만.
- 염색이 교칙으로 금지된 학교에서 방학 때 염색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

13.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 위치, 허용되는 지식과 정보를 달리하는 것

ⅰ. 각종 자격증,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연령제한. 국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출입 제한.

ⅱ. 청소년에게 학생의 위치만 허용하는 표현.
- "얌전히 공부나 하지……."
- '몇 학년이에요?' '저기 학생...'등
- 통상적으로 학교에 있을 시간에 돌아다니는 청소년이나,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훈계하는 것.

ⅲ. 술, 담배, 콘텐츠 등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들에게 노래방과 피시방의 출입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멀티방등의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는 것.
- 콘텐츠들을 등급을 매겨 구분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성(性), 폭력 관련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격리하는 것. (19금)

14. 기성세대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변화된 문화를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혐오하는 것.

ⅰ. 청소년의 존재, 발언권이 커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
-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집회를 가지거나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고, 무서워서 무슨 소리를 못하겠다.' 와 같은 표현

ⅱ. 조그만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
- 요즘 애들은 이 정도로 난리라니까? ㅉㅉㅉ 우리 때는…….

15. 청소년을 분석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것.

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이 아동의 행동양상을 비청소년의 시각으로 해설하고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 아동심리학: 아동을 단순히 발달과정에 따라 구분하고 정형화한다.

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 '위기청소년': 정책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보호'와 '사회복귀(정확히는 '정상적 주기 내로 복귀')'의 프레임.

16.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나이와 생물학적인 개념만으로 고정시키는 것.

ⅰ. 생물학적 비청소년을 모두 꼰대로 연결 짓는 경우.

ⅱ. 청소년이 비청소년과의 의견 차이에서 오는 논쟁을 "꼰대 같다"는 말로 막아버리는 경우.
- 청소년들이 비청소년의 주장을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여 권위적이다고 주장하는 것
- 비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장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하다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17. 자신의 자식이나 동생 등을 불합리하게 간섭해도 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그 잣대를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
* 특히 청소년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을 '가족 같은 맘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라는 식으로 미화하는 경우, 나이주의와 가족주의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다.
- "너 만한 자식이 있다."라면서 훈계하려는 경우.
- "넌 네 부모한테도 이렇게 하니?"

참고사항

* 학교: 나이주의에 의해 견고하게 유지되고, 나이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공간. 학년 간, 선후배간, 교사-학생 간의 나이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개인의 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발언권이나 권력이 차별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험을 절대화 하여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종종 나이주의와 결합해서 여러 차별을 만들어 낸다.

2008년.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지만, 세계인권선언에 적힌 권리들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2008 인권선언 운동'은 만들어졌습니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은 '2008 인권선언운동'의 일부로 시작되어,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못할 인권은 없다구!"선언하며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조차 온전히 담기지 못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담아내기 위해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선언문입니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

1.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아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2.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가출 등등의 파업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3.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하란 말야!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찜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셧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4.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5.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먹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부모 등등)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6.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7.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 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8.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런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9.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냐? 염색, 파마, 삭발, 레게,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10. 청소년이 동네북이냐?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 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11.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12.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안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해선 안 돼.

♪ 청소년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13.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부모나 교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등 우리만의 기록을 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지문을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급식비를 안 낸 사람을 걸러내려는 등의 이유로 함부로 지문을 찍게 해서도 안 돼.

♪ 야 이 스토커야, 너 내가 그렇게 좋냐? 감시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맘대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란 말야.

14.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 교육에서는 인권이 지켜져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해. 그리고 교육은 되도록 공짜인 게 기본 아니겠니?

♪ 공부 왜 해? 청소년은 시험 치는 기계가 아니야! 시험점수로 매겨진 등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구. 입시경쟁을 폐지하란 말이다!

♪ 야간'자율'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뭥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냐! 너나 잘하든지!

♪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과 넓게 생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 선후배 관계나 나이, 직위 등의 사이에서 차별이나 폭력,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나 아웃팅, 폭력, 기타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꼭 있어야 해.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빡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어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빵빵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16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생리나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해. 학교 등에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 마련되어야 해.

♪ 청소년은 잘 쌀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잠 좀 자자! 우리는 충분히 컨디션이 회복될 만큼 잘 수 있어야 해.

♪ 빡센 경쟁교육이나 생존의 위협 등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져야 해.

17.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 내는 것도 보장되어야 해.

♪ 보호라는 핑계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라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전 심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에게는 생태적이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은 취향이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 이것들이 정말로 유해하다면 이것들을 아예 없애거나 유해성을 알리고 줄이거나 끊는 것을 도와야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강제로 금지하는 건 청소년을 만만하게 본 인권침해야.

♪ 청소년은 원산지, 생산 방법, 유통 경로, 유해성 등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19.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은 중요해.

♪ 청소년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해. 청소년의 건강권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

♪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거나 경제적인 조건 등등 때문에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해서는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리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20.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P.S. 여기에서 선언한 권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로 오해해선 안 돼. 모든 인권은 소중하니까~

Chapter 04.

성인지 감수성 맛보기

2 장
내용알기

청소년세트

내 몸 발견하기, 아끼고 돌보기

평소에 생리통이 정말 심한 편이에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메스껍고 관절이 다 아파요. 한약도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생리대 때문에 피부도 아프구요. 매달 이렇게 힘겨운 생리,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고민에 대해

여성들은 월경 전이나 월경 기간 동안 다양한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유방 통증, 두통, 하복부 통증, 변비 혹은 설사 등의 신체 증상과 우울함, 집중력 저하, 피로감 등의 정서적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이런 증상들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게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도 있고,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달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떤 달은 좀 더 아프기도 합니다. 개인에 따라 변화와 증상이 다르니 혹시라도 증상을 심하게 겪는 사람에게 "왜 엄살을 부리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한두 알 정도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안심할만한 근본적인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으니 정말 심하게 아파서 다른 질병이 우려되거나 생활이 힘들 정도가 아니라면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몸을 위해,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에요.
월경 시의 여러 증상들을 스스로 완화하고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이렇게 해 보아요!

이렇게 해 보아요!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하기
운동을 하면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좋은 운동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생리통이 심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가 자세들

아기자세

머리 무릎 자세

화환 자세

누운 나비 자세

재밌는 활동들을 하면서 우울과 스트레스 날려버리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 그림 그리기나 영화보기, 책 읽기 등 집중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통증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차를 즐기기
부드럽고 따뜻한 식사를 꼬박꼬박 챙기고 찬물과 밀가루 음식, 설탕이 들어간 차 종류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몸이 많이 붓는 사람은 옥수수 차 등 이뇨를 돕는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핫 팩으로 찜질하기와 푹 자기
따뜻한 팩으로 아랫배를 찜질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옷 위에 붙이는 찜질팩 같은 것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 생리대 사용하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월경용품들에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생리대나 탐폰은 희고 흡수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 염소 표백 처리를 하는데 이 때 다이옥신 성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은 우리 몸에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자궁 내부는 다른 조직보다 훨씬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생리대나 탐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탐폰은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수성이 좋은 탐폰일수록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오래 사용하지 말고, 잘 때는 탐폰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월경용품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면 생리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 생리대를 사용하면 월경통과 일회용 월경용품 사용으로 인한 가려움, 쓰라림 등의 피부질환이 효과적으로 줄어듭니다. 피부에 닿는 느낌도 훨씬 좋아요! 판매되는 면 생리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빨아서 다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고, 경제적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면 생리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양한 모양의 면 생리대 만드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시도해 보세요!

같은 주제의 마음 카드

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점을 찾아보았어요. 항상 내 몸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꽉 끼는 브래지어가 여자들의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을 때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요.

살을 빼려고 저녁을 굶고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요. 밥을 제 때 먹고 건강을 챙기는 게 낫겠어요.

자위를 통해 내 몸을 더 잘 알게 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산부인과를 여성들이 필요한 의학정보를 제대로 얻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했어요.

더 궁금하다면

웹사이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하는 피임·생리이야기
http://www.wisewoman.co.kr/piim365/index.html

여성환경연대 http://ecofem.or.kr/

책

〈〈우리 몸, 우리 자신〉〉,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 (또문몸살림터 엮어옮김), 또하나의문화

〈〈청소년 빨간 인문학〉〉, 키라 버몬드 (정용숙 옮김), 내 인생의 책

〈〈십대를 위한 사랑학 개론〉〉, 정연희, 최규영, 꿈결

〈〈스무살 전에 알아야 할 성 이야기〉〉, 앤 마를레네 헤닝, 티나 브레머 올제브스키 김현정 옮김), 예문

영화

〈생리해서 좋은 날〉, 김보정 감독, 한국, 2005, 38분

성차와 성역할, 성별 규범 뒤집어 보기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여자애들한테는 '여자애들은 원래 수학을 못 한다'라고 하거나, '여자애가 옷이/머리모양이/걷는 폼이) 그게 뭐냐'고 합니다. 전에 어떤 남자애한테는 대답할 때 목소리가 얇다면서 몇 번이고 크게 다시 대답하라고 시켰어요. 이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저 말고도 많은데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고민에 대해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건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규범을 만들고,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에 차등을 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는 원래 이래', '여자들이란 이래서 안 돼' 하는 등의 특정한 편견과 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혹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나 역할, 능력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그런 성향과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때부터 남자아이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의 옷을 입힌다든지, 남자 아이에게는 블록이나 조립식 장난감, 과학놀이 세트, 자동차 모형 등을 사주고 여자 아이에게는 인형이나 소꿉놀이 세트를 사주는 일, 남자 아이들에게는 울지 말고 강하게 크도록 하는 반면 여자 아이들에게는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양육방식, 주변 어른들의 태도 등이 모두 성별에 따른 역할과 성향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찾아 다르게 표현하거나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자는/여자는 이래

야 한다'는 규범과 규칙에서 벗어나면 혼이 나거나 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규칙을 지키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처음부터 기대하는 역할과 능력이 달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점차 포기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차별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나 개인의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서 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성별에 상관없이 목소리나 성격, 체력, 외모, 취향 등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규칙들에 의문을 가지고, 넘어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 보아요!

우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의 말들이 불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말들은 선생님의 지적을 받은 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친구들을 모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혼자서 선생님에게 말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말씀드리면 더 좋을 거예요.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의견을 전달합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려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의견을 정리해야겠죠?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다양한 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내용을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써서 말씀드리고, 직접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면 편지를 드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익명의 편지를 써서 선생님에게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계기를 만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선생님 한 분 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꼭 한 분의 선생님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모두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관련 주제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학교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용기를 내어 봅시다!

같은 주제의 마음 카드

할머니는 남자는 부엌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요리하는 게 좋아요.

여동생에게 공주인형 장난감이 아닌, 동생이 좋아하는 조립식 장난감을 선물했어요.

우리 집에선 집안일을 당번을 정해 함께 나눠서 해요. 처음에는 잘 하지 않던 아빠와 오빠도 이젠 거의 살림꾼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 친구들과 축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더 궁금하다면

책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노옥재 외 옮김), 황금가지
〈〈세 부족 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마가렛 미드 (조혜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영화

〈〈슈팅 라이크 베컴〉〉, 거린다 차다, 미국/영국/독일, 112분, 2002
〈〈천하장사 마돈나〉〉, 이해영, 이해준, 한국, 116분, 2006

젠더와 성별 규범, 성역할

흔히 '생물학적 성'을 '섹스'라고 하고 '사회적인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조건(성기 모양, 호르몬, 유전자 등)으로 구분하는 성별을 '섹스'라고 하고, '남자답게', '여자답게'와 같이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면서 형성된 태도나 행동 양식, 기질 등을 '젠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성별에 따라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외양을 지니도록 하는 사회적 규범을 '성별 규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남자가 울면 안 된다'던가 '여자애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못 쓴다'는 등의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여자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남자는 짧게 한다든가,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는다는 등의 외모와 관련된 행동들도 이러한 규범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규범들을 어기면 혼이 나거나 비난과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치마를 입는 남성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학습과 내면화의 결과가 '젠더'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한편, 젠더는 성별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젠더 개념이 없던 이전에는 생물학적인 성이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강하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이며, 공적인 판단과 일에 능하고, 성욕이 강하다고 믿었으며,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고, 감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사적인 일들에 몰두하고 모성이 강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따라 특정한 '성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남성은 정치나 과학, 임금 노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은 가사노동, 돌봄노동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1948년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즉, 여자로 태어나서 약하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한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을 수동적이고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로 학습시킨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자 아이에게는 인형이나 소꿉놀이 장난감을 사주어 성역할을 학습시키

고, 남자 아이에게는 자동차 모형이나 로봇, 조립식 장난감, 블록 등을 선물하여 기능이나 사고력을 익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젠더 체계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더' 개념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영역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했고, 남성의 역할 또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벽이 조금씩 무너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젠더에 따른 성별 규범과 차별적 인식, 그에 따른 사회 구조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남성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일로써 지탄이나 혐오, 통제의 대상이 된다거나, 여성이 적극적이거나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일을 하면 '여자가 어떻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식어를 듣게 되는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직장 내에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승진과 임금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점, 정치 등의 영역에서도 여성의 진출과 활약은 여전히 도전적인 일이라는 점 등도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젠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젠더는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생물학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일까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의 '두 개의 영혼'이나 인도의 '히즈라', 태국의 '카토이'처럼 어떤 사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 구분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제 3의 성'이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경계가 복잡하게 교차하거나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이나 심리, 성적 판타지, 성적 정체성, 성과 관련된 삶의 방식,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인 규범과 지위 등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성적 욕망이나 사랑의 대상, 성별 정체성, 성과 관련된 삶의 방식 등이 생물학적으로 규정되거나 본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을 수용하고 학습하면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용이나 학습은 자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압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성적 관행을 택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직업을 잃거나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성애 섹슈얼리티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동성애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민하거나 경험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체로 이성애적 욕망과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성들은 성욕이 강하다는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믿음, 여성들은 성에 관해 수동적이고 성적 쾌락을 주체적으로 즐기지 않는다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과 인식 등도 이처럼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규범이나 위계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는 '비정상'으로 여겨지거나 처벌을 받는 특정한 섹슈얼리티는 시대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비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른 위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성별로 살아갈 것인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성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피임이나 임신, 임신 중지에 대한 결정, 여러 가지 성적 행위들과 연관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 등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기본적 권리이며,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런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처벌, 임신중절을 한 여성에 대한 처벌 등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 법 등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문화나 지역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랜 역사에 걸쳐서 국제법적 인권 기준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주체되기와 성적 자기결정권

이 고민에 대해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은 오기 마련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임을 꼭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피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임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제대로 전하고, 합의하는 일이지만 이것부터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성에 대해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일이라고만 여기는 사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없는 사회일수록 피임은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몸과 나의 삶에 관한 일이니 서로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고 내 의사를 존중받는 일, 올바른 피임법을 함께 익히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용기를 내어, 나의 의사를 전해봅시다!

이렇게 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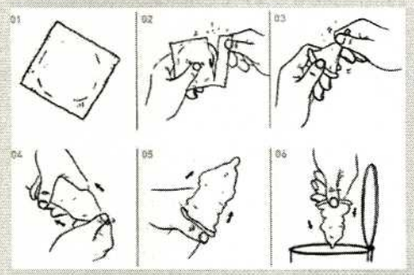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는 당사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임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피임은 여성만의 몫이 아니며 여성들은 자신의 몸

과 성에 대한 권리를 더욱 존중받아야 합니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서로 확실히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임신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성기결합을 하는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을 통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단지 "괜찮을 거야"라고만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만약 성관계나 피임에 대해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방이라면 그 관계는 다시 고려해 보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같이 얘기할 준비가 된 상대방이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성관계와 피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정보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함께 찾아가거나 전화, 온라인 등으로 상담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에요. 이 장의 '더 궁금하다면'에는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와 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피임의 종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콘돔과 먹는 피임약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돔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임의 효과가 좋고, 생식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임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피임약은 피임 효과가 매우 좋지만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피임약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피임약이 있는데, 대체로 약국에서 구입한다고 해도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이나 생활습관, 건강상의 요인 때문에 간혹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잘 알고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피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혼자 피임약으로만 해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사용법을 서로 잘 숙지한다면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는 편이 두 사람 모두의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의 몸 안에 사정을 하지 않거나 생리 주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은 피임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이 방법을 믿지 마세요!
피임은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이며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피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콘돔과 먹는 피임약, 그리고 응급 피임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더 궁금하다면'에 소개하는 자료들을 참고하세요.

콘돔-성공률 대략 85%

콘돔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피임 성공률도 높으며, 생식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의 실수나 콘돔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 피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돔 사용법을 잘 익혀두어야 하며, 먹는 피임약 등 다른 피임법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① 콘돔이 찢어지지 않게 포장지 잘 벗겨내기 (치아나 손톱, 뾰족한 물건을 조심하세요!)
② 콘돔 윗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공기를 빼내고 돌돌 말려있는 부분을 천천히 내리면서 발기된 상태의 성기 위에 조심스럽게 씌웁니다. 공기를 빼냈던 윗부분은 남겨두세요.
③ 성행위가 끝난 후에 '성기가 아직 발기된 상태일 때'(중요합니다!) 콘돔 끝부분을 성기와 함께 잡고 상대방의 몸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정액이 콘돔 밖으로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④ 상대방의 몸에서 완전히 빼내고 나면 콘돔을 벗겨서 휴지통에 버립니다.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콘돔은 성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콘돔은 사정 직전이 아니라 성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을 미처 착용하기 전에 사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사정 전에도 남성의 성기에서 분비되는 쿠퍼액이라는 분비물에 100만 마리 정도의 정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병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도록 합니다.

먹는 피임약-성공률 대략 98%

먹는 피임약은 복용법을 잘 지켜서 사용했을 때 피임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부작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피임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거나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복용하는 편이 좋지만, 병원에 갈 수 없다면 복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반드시 잘 알아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생긴다면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피임약 복용법

월경 첫날부터 21일 동안 매일 한 알씩 시간을 정해 복용한 후 7일 동안은 복용을 하지 않거나, 흰색 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 흰색 약을 복용합니다. 7일이 지나면 월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새 피임약을 같은 주기로 복용합니다.

피임약 먹는 것을 하루 잊어버린 경우

두 알을 복용한 후 다음 날 부터는 다시 한 알씩 같은 시간대에 복용합니다.

복용 1, 2주차에 두 알을 연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두 알을 복용한 다음 기존 복용 시간대에 다시 한 알씩 복용합니다. 이 시기에 복용을 잊었다가 다시 복용한 경우, 7일 동안은 피임약 복용과 동시에 콘돔 등 보조 피임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7일간 성관계가 있었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용 3주차 이거나, 세알 이상을 연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한 알을 복용하고 기존 복용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한 알씩 복용해야 하며, 역시 7일 동안은 피임약 복용과 동시에 콘돔 등 보조 피임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7일간 성관계가 있었다면 임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복용 3주차에 세 알 이상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휴약기(또는 흰색 약의 복용기)를 두지 않고 바로 새 포장의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으로!

심한 통증, 다리가 부음, 심한 두통, 현기증, 마비, 눈이 침침함, 언어 장애, 가슴통증, 기침, 호흡 곤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고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응급 피임약

응급 피임약은 피임을 할 수 없었거나 실패했는데 임신이 우려되는 경우, 강간 등 성폭력을 당했을 때 성관계 후에 복용하는 피임약입니다. 응급 피임약은 늦어도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대체로 성관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95%,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58%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응급 피임약은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하면 효과가 좋고,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 중절을 방지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나 남용의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마음 카드

피임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애인과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했어요.

만날 때마다 데이트 비용을 다 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더 궁금하다면

웹사이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하는 피임·생리이야기'
http://www.wisewoman.co.kr/piim365/index.html

피임연구회 http://www.piim.or.kr/

탁틴내일 http://www.tacteen.net/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http://wesay.or.kr/

●전국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연락처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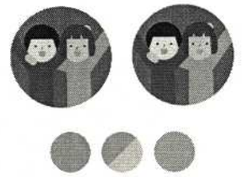
〈〈청소년 빨간 인문학〉〉, 키라 버몬드 (정용숙 옮김), 내 인생의 책

〈〈십대를 위한 사랑학 개론〉〉, 정연희, 최규영, 꿈결

〈〈스무살 전에 알아야 할 성 이야기〉〉, 앤 마를레네 헤닝, 티나 브레머 올제브스키 (김현정 옮김), 예문

일터와 섹슈얼리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점장이 자꾸 어깨나 몸을 만지거나 손을 잡는 성희롱적인 행동을 해요. 점장에게 딱 잘라 말하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고민에 대해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일하는 공간에서의 관계나 권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예방 의무와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역시 엄연히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면서 희롱하는 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게시물을 보게 하는 일, 고의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일, 성적인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묻거나 언급하여 곤란하게 하는 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데

이트 강요 등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항의하고, 어딘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임금 삭감, 왕따, 의도적인 괴롭힘 등 불이익을 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안다고 해도 직접 대처하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래도 참지 말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 보아요!

2014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청소년 544명 가운데 39.9%가 성폭력·폭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70.4%의 청소년들이 그냥 참고 일을 했고, 29.6%의 청소년이 일을 두었으며, 18.5%의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의 대응 방법을 알아둡시다.

알바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응하기

① 일단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불쾌한 말이나 행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처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 되거나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상대방이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할 말을 생각하고 연습해 둡시다.

② 만약 직접 마주하여 말하기가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편지, 이메일 등을 보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쓰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느꼈던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반드시 복사해 두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③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행위, 나의 대응, 목격자 등을 자세히 적어두고, 사진, 영상, 문자, 녹음기록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모아둡시다!

④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괴롭게 한다거나 내가 거부 표현을 한 후로 의도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이런 행위들 역시 반드시 기록과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다음 단계의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소용이 없거나 더 이상 상대방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⑥ 신고 전에 자료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또는 무료 법률상담소, 알바노조,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 상담 기관, 단체 등을 찾아가 보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얻거나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⑦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동료, 친구, 부모님, 상담 기관 등에 이야기하고 지원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⑧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만약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거나 서로에게 증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좋을 거예요.

⑨ 만약,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상대방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지방고용노동청,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 '어깨나 몸을 만지거나 손

을 쓰다듬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만이 아니라 '성추행'으로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증거 여부, 이후 상황에 대한 판단 등을 잘 고려해 성추행 고소 여부까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⑩ 성희롱을 경험한 후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되었다면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병원 기록들은 자료로 모아두었다가 신고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할 때 제출하고, 스스로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떤 이유가 되었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상대방이지 성희롱을 겪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보아요!

더 궁금하다면

웹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 온라인 상담실 http://counsel.womenlink.or.kr/

알바노조 http://www.alba.or.kr/

고용노동부→정책안내→대상자별 정책→여성→'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 페이지
http://www.moel.go.kr/

여성가족부->정책안내->인권보호->성희롱 예방 페이지
http://www.mogef.go.k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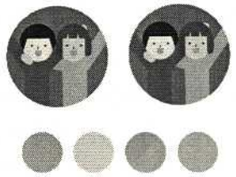
책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민우회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 박희정, 길찾기

성적 다양성, 이해하고 존중하기

제 친구가 학교에서 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뒤로 일부 애들이 걔 책상 안에 이상한 걸 넣어놓거나 칼로 욕을 써 놓기도 하더니 급기야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학교나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친구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고민에 대해

먼저 '게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요즘엔 워낙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라서 '게이'가 '동성애자'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겠지요?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를 모두 '게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여자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즉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이성애자', 상대방이 나와 같은 성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사람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한편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곤 하는 '트랜스젠더'는 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다른 성별 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고, 정서적/낭만적/성적/감정적인 끌림을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느끼는지를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리수 씨는 태어날 때 남성의 성별로 규정되었지만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지닌 '트랜스젠더'이고, 여성으로서 남성과 결혼을 했으니 '이성애자'로서의 '성

적 지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홍석천 씨는 태어날 때 규정된 성별과 자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성별이 '남성'으로 일치하는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동성인 남성을 사랑하는 '동성애자', 즉 '게이'인 것이지요. '성적 지향'은 '누구와 섹스를 하는지'와도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성적 지향'은 '정서적/ 낭만적/성적/감정적인 끌림을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과 섹스를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성애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게이'는 '동성애자'를 지칭할 때만 쓰이지 않습니다. '남자답지 못한 남자', '여자같이 행동하는 남자'들에게도 게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이가 아닌데도 단지 '여자같이 군다'는 이유만으로 게이로 몰려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자같이 행동하는 남자'는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왜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게이'는 놀림이나 비하의 말이 되었을까요? 왜 '게이'를 괴롭히는 거죠?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말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위치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답다'라는 것이 결국 '힘이 세다', '운동이나 싸움을 잘 한다', '몸매가 건장하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런 남자들이 세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여자 같은' 행동은 '약하고', '감정적이고', '하찮은' 것으로써 남성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한 곳일수록 '여자 같이 구는' 남자들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남자인데 여자 같거나, 남자이면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남들과 '다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당연히 그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아주 남자 같은 남자에서부터 아주 여자 같은 여자가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이 사이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아주 다양한 비율로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가장 단순하게 '남자' 아니면 '여자'로 분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에게는 전혀 아무런 감정적 이끌림이 없는 이성애자'부터 '동성에게도 가끔 끌리지만 대체로 이성에게 끌리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또 다른 감정이나 이끌림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전혀 생각해보기도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고 해도 사회에서 금기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포기하거나 일부러 무시하기도 하지요. 동성애자는 이런 사회적 규범이나 금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성을 향하는 자신의 정서적/감정적/성적 끌림에 따라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다름'은 '이거 아니면 저거'로만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1부터 100까지의 아주 많은 차이들 어딘가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 경제적 상황이나 사는 곳, 나이, 성별, 가족 상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내가 다수의 구간에 있는지, 소수의 구간에 있는지는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이 사회에서 다수가 될 수도, 소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수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나 자신도 또 다른 조건에서 그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세상 보다는 이 다양한 차이들을 누구나 편하게 드러내고 진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 보아요!

학교에서 이런 괴롭힘에 대응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위 친구들과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한 학생을 질책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괴롭힘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참다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괴롭힘을 겪고 있는 이의 친구라면 꼭 함께해 주세요!

① 상담하기

●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 먼저 친구와 함께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필요한 지지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성소수자 단체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소, 청소년 단체에서 온라인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여자 같다는 이유로 게이라는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성격이나 성향, 특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상담기관이나 그런 고민을 잘 알고 있는 단체, 또래 친구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 동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부터 그 사실이 절대로 괴롭힘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성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듯이,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죄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럽거나, 스스로 이런 사실 때문에 괴롭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과 솔직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필요한 자료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의 과정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고, 필요한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괴롭힘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를 차차 회복해 나가면서 자존감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대응하기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에 따라 괴롭힘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데, 동조나 방관은 그 친구가 당하고 있는 일을 그저 흥밋거리나 관심거리로 여겨지게 만들면서

괴롭히는 사람에게 암묵적인 힘과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나서서 괴롭힘에 항의한다면, 괴롭히던 사람에게도 일단 자신이 괴롭히던 사람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그 괴롭힘이 잘못된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더 이상 그 행위를 흥밋거리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괴롭힘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 괴롭힘이 더 심해지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괴롭힘을 당한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줄 수 있으며, 이 친구와 함께 어울려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을 중단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힘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 만약 학교에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괴롭힘을 겪고 있는 친구와 함께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때, 친구가 실제로 게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선생님께 반드시 고백하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심각한 괴롭힘과 폭력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폭력이 중단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알리고 폭력을 제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 경기도, 광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면 교육청에 연락해 도움을 얻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마음 카드

친한 친구가 나에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FTM 트랜스젠더에요. 내 성별 정체성에 맞는 교복을 입고 싶어서 학교에 건의한 후 남학생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공원에 남, 여 장애인 화장실과 함께 성별 구분 없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생겼어요.

더 궁금하다면

웹사이트

탁틴내일 http://www.tacteen.net/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http://wesay.or.kr/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https://www.ahacenter.kr

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인권팀 발판 http://cafe.naver.com/lgbtyouth/949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lsangdam.org/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chingusai.net/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crc.org/
별의별 상담연구소 http://www.878878.net/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blog.lgbtact.org/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vanschool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https://transgender.or.kr
퀴어문화축제 https://www.kqcf.org

성소수자 커뮤니티

티지넷 http://www.tgnet.co.kr/
로다 http://roda.kr/
이반시티 http://www.ivancity.com/
청소년성소수자 커뮤니티 라틴 http://cafe.daum.net/Rateen
Youth 이반카페 유이카 http://cafe.daum.net/good2ban

책

<<난 그것만 생각해>>, 카림 르수니 드미뉴(김혜영 옮김), 검둥소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김비 지음, 오상
<<앰 아이 블루?>>, 메리언 데인 바우어 (조응주 옮김), 낭기열라
<<누가 무지개 깃발을 짓밟는가>>, 스티븐 스프링클 (황용연 옮김), 알마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숨 프로젝트, 한울

영상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움, 한국, 110분, 2007
〈소년은 울지 않는다〉, 킴벌리 피어스, 미국, 116분, 2000
〈바비를 위한 기도〉, 러셀 멀케이, 미국, 89분, 2009년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총칭하고자 할 때 간단히 쓸 수 있는 줄임말입니다. 퀴어(Queer)나 탐색중인 사람들(Questioning)을 포함하여 LGBTQ, 무성애자(Asexual)와 간성(Intersex)을 포함해 LGBTAIQ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퀴어Queer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 원래는 '이상한, 기묘한'이란 뜻으로 서양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젊은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와 자신의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항의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이 단어가 성소수자 커뮤니티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좀 더 유동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기 적합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성적 지향 다른 사람을 향한 영속적인 정서적, 감정적, 성적인 이끌림.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성애자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성적이끌림이 동성을 향하는 사람.

게이Gay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성적 이끌림이 남성을 향하는 남성.

레즈비언Lesbian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성적 이끌림이 여성을 향하는 여성.

양성애자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성적이끌림이 동성과 이성을 향하는 사람.

이성애자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성적이끌림이 이성을 향하는 사람.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젠더비순응(Gender Non-conforming)인지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느낌.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의 경우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과 스스로 내적으로 느끼는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몇 가지 의미있는 방식으로 성별(젠더)의 전형적인 정의를 거부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성별(젠더)과 갈등을 빚거나 그러한 성별을 의문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FTM(Female to Male, 여성으로 태어나고 양육되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남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상태), MTF(Male to Female, 남성으로 태어나고 양육되었으나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상태), 젠더퀴어(Genderqueer, 성별 이분법에 반대하여 특정 성별로 정체화하지 않는 상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젠더로 살아가기 위해 성별화된 복장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료적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트랜스젠더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별과 신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호르몬투여, 외부성기재구성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는 사람. 트랜스섹슈얼 스스로 선택한 의료적 조치를 실천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고 비용의 제약없이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별 체계를 강요하면서 성별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외부성기재구성수술 등의 성확정수술 ('성전환수술')과 같은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일은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간성 남성 혹은 여성의 전형적인 신체와 맞지 않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게 하는 염색체, 성선(性腺), 생식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생식기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커밍아웃coming out 벽장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즉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하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커밍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에게 커밍아웃은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자기 수용의 과정이고 커밍아웃의 정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웃팅Outing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서 스스로 원하지 않는 커밍아웃이 이뤄지는 것은 큰 고통이 됩니다.

혐오범죄 동성애혐오, 인종혐오 등의 혐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종교적 편견으로 행해지는 동성애자, 여성, 소수인종, 소수민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적 행위. 구타, 험한 욕을 하는 언어 폭력, 특정 집단에게 문화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유대교 회당이나 교회 등 성소)를 파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무지개 성소수자의 상징.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색깔은 삶, 치유, 태양, 자연, 예술, 영혼을 상징합니다. 197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게이-레즈비언 자긍심 행진에서 킬버트 베이커가 동성애자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8색 깃발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밍하웃한 첫 시의원이었던 하비 밀크가 저격 당하는 사건이 있은 후, 이듬해 동성애자 퍼레이드에서 동성애자들의 세력과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6색 무지개 깃발로 정착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상징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폭력과 성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이 고민에 대해

성폭력은 자신이 지닌 사회적/성적 지위나 권력, 물리적 폭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강제 추행,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추행, 언어적 희롱, 스토킹 등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했다면 이러한 행위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인식은 성폭력이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피해자가 유혹적이어서' 또는 '상대방을 좋아해서' 벌어진다는 생각입니다.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어서', '밤늦게 돌아다녀서', '술을 마셔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다거나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성욕을 참지 못해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실수한 것이다' 라는 등의 말들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피해 생존자에게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해서 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욕을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의 의

사에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권력,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졌을 때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폭력은 낯선 사람이나 특정한 범죄자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인척,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 의한 성폭력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권력 관계 등으로 인해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는/선배는/나이 많은 사람은/윗사람이나 상사는 이래도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하는 태도, '여자/후배/나이 어린 사람/부하직원은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과 통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폭력과 복종을 통해 권력이나 위계를 유지해 나가는 잘못된 문화가 성폭력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성폭력 피해의 위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폭력의 이와 같은 원인들을 생각해보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단지 특정한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예방을 이유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귀가 시간, 행동을 단속하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여 오히려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낯선 사람,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연인이나 부부, 가족 관계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함부로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며,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의사 표현이 제대로 이해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그냥 있었던 이유 중 51.3%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40.7%가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제 대부분의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

고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력이나 물리적 폭력 때문에 저항하기가 어렵거나, 저항했을 때 더 큰 피해가 온다고 판단될 경우 저항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겠느냐'는 등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게 만들며, 피해자에게도 큰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함께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리자!

성폭력은 정신 이상자나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 의한 성폭력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상에서의 권력 관계나 성별 위계,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폭력은 일시적인 성욕을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권력,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졌을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는 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으며, 19세 이하의 피해자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전체의 5~10%를 차지합니다.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문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여성들의 노출을 극도로 제한하는 나라에서도 성폭력 발생 비율은 높습니다.

성폭력에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어떻게 입으라고 훈계하지 말고,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성을 매개로 한 괴롭힘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피해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충격과 피해를 느꼈는지는 오직 당사자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경험한 당시 뿐만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낙인,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주변의 반응으로 인해 성폭력을 겪은 이후에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거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 조직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제기로 조직에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비난이나 압박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특히 가해자가 조직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경우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가해자를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음에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면서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하거나, '딸 같아서 그랬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느낌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싫어'는 '좋다'는 뜻?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

'싫다'는 표현을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성문화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한다면 아무리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성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피임이

나 임신, 임신 중지에 대한 결정, 여러 가지 성적 행위들과 연관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 등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은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줄 아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실천이겠죠?

함께할 수 있는 일 두 번째, 성폭력 피해 시의 대처방법 공유하기

-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 샤워나 목욕을 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가능하다면 혼자 가는 것보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또는 상담소의 상담원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와 검사, 증거 확보에 참고하기 위해 사건 당시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갑니다.

-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신체적 증상이나 상처,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신체적 상해의 가능성까지 의료 기록에 서술해 줄 것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에 대한 검사와 치료 뿐 아니라 의료적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검사, 성병 예방을 위한 처치, 응급 피임약 등 임신 예방을 위한 처치 등을 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피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추적 검사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에 전화하면 각 단체/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담 의료 기관으로 갈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과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쉼터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합니다.

● 피해일시,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 본인의 현재 상태 등을 잘 정리해 둡니다.

● 옷이나 다른 증거물들은 모아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해 둡니다.

●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 트라우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변의 친한 누구에게라도 고통을 이야기하고 전문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지인, 동료, 전문 기관/단체, 경찰, 사법기관 등에 가해자와의 분리와 접근금지 및 안전한 공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고려합니다.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면서 가해자와의 관계, 자신의 현재 상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이나 그룹의 확보 여부,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사항 등을 고려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일 세 번째, 피해 생존자 지원하기

주변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기
● 피해 당시의 당사자의 행동과 경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지하기
● 피해 생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쏟아낼 수 있도록 하고 들어주기
● 피해 생존자가 안전한 장소를 찾도록 도와주기
● 피해 생존자가 건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식사나 수면 상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을 주기

● 사건의 해결과 회복을 위해 고민할 때 충고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함께 찾아 제시해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해주기
● 가해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함께 힘을 주기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함께 대응하기
● 피해 생존자의 주변에 피해 생존자를 탓하거나 2차적인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지하고 함께 대응하기
● 심리적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믿고 지지하기

함께할 수 있는 일 네 번째, 경험 나누기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다면 서로의 경험을 말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볼 수도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생존자 말하기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 치유와 지지, 격려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일 다섯 번째, 자기방어 훈련

성폭력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을 더 위축되게 만들고 스스로를 단속하게 만듭니다. '자기방어 훈련'은 단지 성폭력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에서부터, 성폭력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빠져나와 도망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거나, 급소를 공격하는 법, 주변의 도구나 지리를 활용하는 법 등의 행동을 몸에 익혀둠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과 내 안에 숨겨진 힘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마음 카드

'자기방어훈련'을 배우고 있어요.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것도 좋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더 궁금하다면

웹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 온라인 상담실 http://counsel.womenlink.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여성가족부->정책안내->인권보호->성폭력 방지 페이지 http://www.mogef.go.kr/

책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김성애, 또하나의문화

<<아주 특별한 용기>>,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이경미 옮김), 동녘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수잔 브라이슨 (고픈 옮김), 인향

<<으랏차차 호신 가이드북>>,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과 법

세계 인권 선언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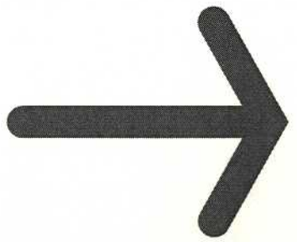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Chapter 05.

노동인권 감수성 맛보기



『프롤로그』 부려 먹기 쉬운 존재들의 밑바닥 노동

청소년 노동,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한마디로 팔려 가는 거잖아요. 부려 먹기 쉽고 말 잘 들으니까."2005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닐 때 만났던 학생 하나가 거품을 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삼성반도체 아산탕정공장의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로 실습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보호 장비도 없이 위태로운 줄에 매달려 공장 청소를 했단다. 광주광역시의 어느 공고 학생은 인력파견업체가 보내온 승합차에 몸을 실어 경기도 시흥의 시화공단까지 실습을 나갔다고 했다. 승합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자신이 실습할 곳이 빵 만드는 공장임을 알았단다. 하루 12시간주야 맞교대, 단 20분의 점심시간,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시급, 교육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단순 반복 노동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실습' 환경이었다. 당시 실태 조사 보고서를 쓰며 고심 끝에 내건 제목은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간접 고용 현장실습 인권 실태 보고'였다. 보고서를 들고 교육부를 압박해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내놓도록 만들면서도, 내내 그가 뱉은 한마디가 머릿속을 따라다녔다. 팔려 간다, 부려 먹기 쉽다…….

그들이 실습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청소년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떤 이름으로든 '부려 먹기 쉬운' 존재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됐다. 사회는 물론 교육운동과 노동운동 안에서도 하나의 의제로 진입하지 못한 청소년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구는 일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모욕을 견디는 시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매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사회에 알려 왔다. 그 사이 청소년노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고,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도 늘었다. 청소년 노동에 관심 있는 단위들이 모여 대응을 모색하는 지역 네트워크들도 여럿 결성됐다.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몇 차례 발표될 만큼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결실도 맺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노동 현실은 과연 달라졌을까.

애석하게도 청소년들에게 노동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고단하기 짝이 없다. 청소년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데다 그 적은 돈마저 벌금이나 위약금 같은 갖은 명목으로 떼이곤 한다. 다짜고짜 반말은 기본이고 막말과 고성이 쏟아지는 일도 잦다.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보상은 하늘의 별 따기다. 오토바이 배달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자리라도 감지덕지해야 하고, 느닷없는 해고를 당해도 조용히 접고 물러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노동법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일자리를 구한다. 고용주도 노동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대다수 청소년 노동자의 일자리가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어겨도 법이 아예 용인해 주는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당연히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해고 예고 등의 법적 보호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임금 체불이나 산재 사고, 성희롱 피해와 같은 극단적 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애초 받기로 한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라는 식의 태도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비난의 화살은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떼어먹는, 애들을 위험에 내모는, 애들을 노리개로 삼는 몇몇 악덕업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관심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겪는 보통의 문제들은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는다. 최저임금은 받으며 일했다고 해서, 일하다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그 문제가 가벼운 것도 아니다.

1) '성인'이라는 말은 청소년이 완성되지 않은 존재, 미성숙한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어른' 역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곧장 '철이 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기에 '비청소년'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쓴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모욕 중단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청소년 노동자가 일터에서 주로 불리는 이름은 '야', '너'이다. 반말은 기본이고, 손님들 앞에서 막말과 욕설로 혼이 나는 일도 흔하다. 비청소년[1]과 같은 실수를 해도 청소년에게는 더 큰 모욕이 돌아온다. 뒤통수 때리기나 벽보고 서 있기와 같은 체벌도 청소년에게만 행해지는 노동 규율이다. 고깃집 주방에서 일하던 한 청소년은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혼자 옮기다 엎지를 뻔했던 일을 가장 아찔하고 서러웠던 순간으로 꼽았다. 호텔 연회장에서 일했던 청소년은 손님의 눈에 띄지 않는 병풍 뒤 바닥에 앉아 쉬면서 왠지 의자에 앉을 자격도 없는 바닥 인생이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청소년은 주방에서 빵을 조금 태웠다는 이유로 탄 빵을 입에 쑤셔 넣는 '가르침'을 받고서는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배달 일을 했던 청소년은 태풍 속을 뚫고 배달을 다녀왔는데도 '빨리빨리' 재촉만 하는 사업주를 보고서는 '죽으라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일 자체의 고단함보다 자기를 대하는 모욕적 태도가 더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이런 모욕을 견디며 손에 거머쥔 임금도 너무나 초라하다. 내가 고작 이 돈 받으려고 그런 수모를 당했나 싶어지다가도, 내가 받은 돈만큼 내 인격도 그런 수준이구나 싶어져 어깨가 꺾이기도 한다. 그러니 임금이라도 올랐으면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진다. 워낙 임금이 낮다 보니 형편이 열악한 청소년은 더 오래 일하거나 여러 일자리를 뛰어 필요한 수입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모욕을 견뎌 내야 할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청소년의 노동은 밑바닥이다.

문제는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일상이 된 모욕에 있다. 낮은임금, '빡센' 일과, 부당한 해고, 한정된 일자리까지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노동 조건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욕임이 분명하다. 모욕 받은 노동자는 그 모욕에 대해 항거해야 하지만, 청소년 노동자 가운데는 터무니없이 '착해서' 외려 안타까울 지경인 이들이 많다. "사장님이 그래도 저를 챙겨 주시는 편이에요." "사장님도 사정이 어려우세요." '어른'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오랜 훈육의 결과인지, 주로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해서인지 몰라도 청소년 노동자는 자기보다 사업주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곤 한다. 세상에 대한 체념도 빨랐다.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현재의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보장받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보다 사장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오지랖과 세상에 대한 체념은 어쩌면 서로의 거울상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받는 임금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매일 각인시켜 주는 상황에서, 상대는 반말을 하는데 나는 꼬박꼬박 존대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른 말씀 잘 들어라'라는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들어 온 상황에서 부당한 일에 맞선 저항과 연대의 경험을 가져 본 적 없는 상황에서체념은 가장 손쉬운 생존 전략이 되곤 한다. 그러나 체념이 삶의 고단함의 본질을 위로하진 못한다.

청소년 노동 세계의 수상한 변화

청소년의 노동은 이제 또 다른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삶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노동도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취업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고용 방식은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인건비 감축을 노려 출퇴근 시간을 늦췄다 당겼다 하거나 성수기에만 일시 고용하고 곧장 해고해 버리는 '수도꼭지'형 노동력 사용 행태가 잠식해 들어온 사업장도 늘었다. 산업구조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급속히 재편돼 일자리는 더 싸지고 더 임시적이 되었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해 봤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어졌고, 소득 격차 역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노동 세계에서 가장 주변부에 몰려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이 세상의 변화가 덮쳤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 자체가 대폭 줄었다. 한때 청소년 노동의 대표 얼굴이었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지를 둘러봐도 더 이상 청소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그곳들은 생활고에 내몰린 이십 대 청년들이나 장년들로 채워지고 있다. 예전과 똑같은 일자리라고 해도 고용의 형태가 달라졌다. 수요가 많은 시간대나 계절에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남은 일자리들은 이제 책임을 물을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알기 힘든 간접 고용,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일 고용, '사업자'가 되었으나 노동법의 적용조차 기대할 수 없는 특수 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들로 대체되고 있다. 더 적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는 노동의 시

대, 그야말로 '근로 빈곤'의 시대가 청소년 노동도 덮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전단지 돌리기도 업체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니라 광고 대행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 청소년은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에 있는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택배로 전단지를 전달받은 후 그것을 붙였다는 인증 사진을 보내 주면 나중에 임금을 지불해 준다고 했단다. 그런데 그는 몇 달째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본 적도 없고, 임금 지급을 약속한 구인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얼굴을 본 적도 없다. 떼어먹힌 임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기 그지없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단지의 세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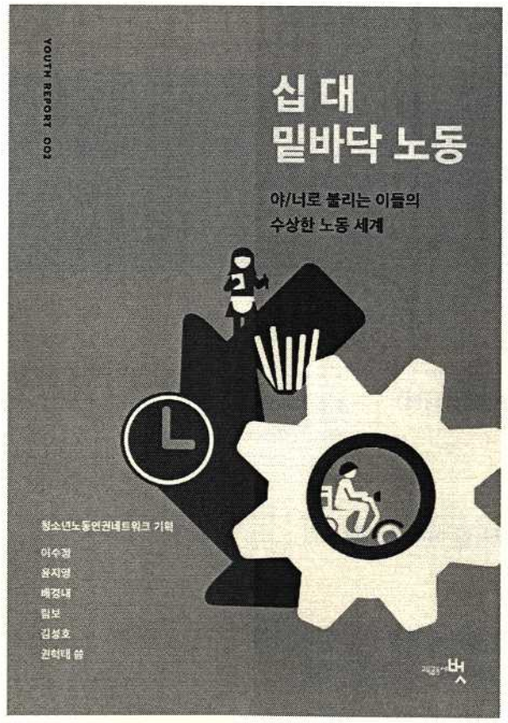
남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배달 노동 역시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와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들은 '사업자'가 되었는데도 노동자 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였다. 산재 보상 등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업자. 여성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호텔 연회장 서빙 역시 호텔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직 호텔 직원 출신들이 차린 구인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파견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중간 업체를 끼다 보니 호텔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에 비해 시급이 더 낮아진 것은 물론이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탈가정(가출) 청소년들이 몰린다는 택배 상·하차 노동은 하루 10~12시간씩 중량물을 내리거나 쌓는 밤샘 노동을 해야 하는 데다 폭언과 고함으로 작업이 유지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견뎌야 한다. 택배 분류 노동 역시 택배업체가 아닌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방식이다. 사고가 나도 실제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택배업체에는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다. 게다가 이런 일자리조차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절박한 탈가정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듯 청소년 노동은 기존의 노동 문법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예전엔 자신을 고용한 사장이 누구이고 자신이 일한 곳이 어디인지라도 알았다. 작정만 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도 있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관계라도 확장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잘릴 각오를 하고 힘을 규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자본의 얼굴은 점차사라지고 있다.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힘들다. 동료들과 내일의 관계를 확약할 수 없으니, 오늘의 관계도 임시적이거나 아예 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못 느낀다. 저항할 대상도불분명하고 힘을 규합할 동료도 사라진 노동, 관계 맺기 자체가 삭제된 노동, 그리하여 저항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노동. 이렇게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안 그래도 열악한 청소년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더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한다. 지금 청소년의 노동 세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그토록 꿈꾸는 '꿀알바'가 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가는지, 성별이나 가족 형태 등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노동자의 삶의 들여다보면 어떤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연소근로자 보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던 정부의 정책이 왜 그저 '알리바이'에 불과한지를.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질문은 노동 세계뿐 아니라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놓인 삶과 지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십 대 밑바닥 노동' 책을 추천 드립니다.

제목: 십 대 밑바닥 노동 - 유스리포트 2, 야/너로 불리는 이들의 수상한 노동 세계
기획: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저자: 이수정, 윤지영, 배경내, 림보, 김성호, 권혁태
펴낸곳: 교육공동체 벗
펴낸날: 2015년 1월 5일



SIDE MENU_

2017 거리활동가(청소년아웃리치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및 정기교육 공고문

2017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와 함께 밤거리를 누비실 '거리활동가'를 모십니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는 밤거리를 누비며 청소년 분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수다를 떨며, 다양한 위기 상황과 문제들에 함께 대처해 나갑니다. 지역사회/시민사회와 함께 청소년 분들이 위기 상황들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을 위기로 내모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에 함께합니다.

청소년도 즐겁고 평화로울수 있는 사회를 꿈꾸시나요?
당신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와 함께 밤거리를 누비실 '거리활동가'로 모십니다!

1. 모집기간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까지.

2. 활동내용 : EXIT는 버스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청소년 분들을 찾아가 만나며, 청소년 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합니다.

가. [상담 및 교육 활동] 인권부터 연애까지, 다양한 정보와 대화를 나눕니다.
나. [긴급지원 활동] 따뜻한 밥한끼 부터 의료, 법률, 학습 등 필요한 지원을 연결합니다.
다. [다양한 문화/사회활동] 청소년도 활동가도 모두 즐겁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3. 활동일정 (일정 및 장소 선택 가능)

가. 매주 목요일: 경기 수원역 부근 (18:00~ 익일 05시쯤까지)
나. 매주 금요일: 서울 신림역 부근 (18:00~ 익일 06시쯤까지)

4 활동혜택 및 지원

가. 정기교육 및 활동가 심화교육, 워크숍 지원. (연 4회 이상)
나. 매주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제공.
다. 밤을 불태울 수 있는 카페인 및 맛있는 식사, 간식 제공.
라. 활동 참여시 소정의 귀가비 지원.
마.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지급. (VMS)

5. 자격조건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20세 이상인 사람
다. EXIT 이용자와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
라. 〈EXIT 2017 거리활동가 정기교육"인권밥상 엑시트"〉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우대조건 (너무 많아서 ㄱㄴㄷ순)

가. 검정고시 · 대안학교 · 대학원 · 대학입시거부 등 다양한 교육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가. 경찰서, 법원, 소년원, 국회 등 법률기관을 방문해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 다양한 제도적 복지혜택을 누려본 사람(청년수당,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등)
가.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이주민 등 할 말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빌언덕 하나쯤은 있어야 하고, 청소년 분들에게 비빌언덕 하나 되어보는 흔쳐 않은 기회를 얻고 싶은 사람
가.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 출신 지역 · 출신 국가 · 출신 민족 · 신체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성적 지향 · 학력 · 병력 등의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
가. 알바노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
가. 재미와 진지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가. 다양한 청소년 분들과 만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 편견 · 아집 · 고정관념에 쩔어 있지 않으며, 나와 다른 의견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 하룻밤을 불태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 사람 (체육, 심리, 인권, 의학, 지리, 복지, 여성, 법, 식품영양 등)
가. 획일적인 아침형 삶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밤을 즐기는 올빼미형 사람
가. 따로 안 쓰여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활동에 나눌만한 경험, 정보 등 무언가가 있는 사람

7. 신청방법

가. 온라인으로 '2017-EXIT '거리활동가' 자원활동 및 정기교육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 작성 링크: http://naver.me/xXArssIt
나. 7월22~23일, 29~30일에 진행되는 정기교육 〈인권밥상 엑시트〉에서 활동을 맛보세요!
다. 8월부터 EXIT와 함께 청소년아웃리치 활동에 신나게 참여해보세요.

8. 문의 : (사무실) 02-863-8346 | (메일) wahahabus@hanmail.net | (기관폰) 010-9605-1318

(사)들꽃청소년세상,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배움. (사)들꽃청소년세상은 사회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분들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 야간시간, 버스를 이용하여, 거리에서 청소년 분들을 찾아가 만나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에서 자격조건을 두는 고민을 안내드립니다.

▲ 활동기간

단기간 활동을 하다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지하거나, 함께하는 활동가가 자주 바뀌는 경우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 분들과 이용하는 청소년 분들 모두 혼란스러워 하거나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문제들이 쌓여 기관, 활동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이에 EXIT에서는 활동가들 간에 그리고 청소년 분들과의 관계 및 신뢰가 충분히 형성 될 수 있도록 6개월의 최소기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나이 및 개인적 관계

긴급지원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EXIT에게 비밀보장은 중요한 활동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분들과 비슷한 연령대 이거나, 같은 학교를 다닌 경우 지인·친구·선후배 등의 관계가 얽혀 있게 되고, 비밀보장에 대해 신뢰하며 편안하게 EXIT를 이용하고,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거리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주체성'을 중요한 활동가치로 지향하는 EXIT에게 더욱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나이 및 개인적 관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XIT 이용자 분들 중 거리활동가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 경우 개인적 관계들이 충분히 정리될 때까지 EXIT 이외 다른 기관/단체에서 3~5년간 활동 후 EXIT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육이수

학교, 관공서, 거리 심지어 청소년기관에서도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청소년 분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하대, 차별, 무시 등의 청소년차별적인 행태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 빈곤, 성정체성, 학력 학벌, 가족의형태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소수자를 향한 무지와 무시가 만연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 되어버린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고민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태들을 알게 모르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에 EXIT는 청소년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비청소년들이 더 편한 공간이 돼버리지 않도록, 다양한 소수성을 가진 모두가 편안하고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아웃리치활동'의 가치와 정보를 나누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이수를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